



월간 충현

대한예수교장로회 충현교회

'78 5월호

어머니

언제나 부르고 싶은 이름입니다.

사람이 낄 때부터 죽기까지, 기쁠때나 슬플때나 가장 많이 부르고 또 언제나 부르고 싶은 이름은 어머니라는 이름입니다.

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어린애들이 제일 먼저 품안에서 배우는 말은 「엄마」입니다. 소꿉놀이를 하다가 지쳐서 집에 돌아올 때에 문에 들어서자마자 부르는 이름도 어머니입니다. 넘어져 울면서 부르는 이름도 어머니입니다.

학교에서 그림에 동그라미 다섯을 맞고 자랑하고 싶어서 부르는 이름도 어머니입니다. 장성하여 멀리 정운의 뜻을 품고 타향에 가서 기숙사 창밖으로 고국을 바라보면서 부르는 이름도 어머니인 것입니다. 자기가 어머니가 되고 할머니가 되어 늙더라도 역시 어린애와 같이 부르는 이름도 어머니인 것입니다.

어머니는 우리 생활에 희노애락, 위로, 공포, 격려에 언제나 따라 붙는 이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과 생활에서 어머니를 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머니란 말은 무슨 뜻이 있습니까? “어머니” 무슨 뜻이 있었습니까? 그저 막연합니다. “사랑일까? 용서·안식·구원·교사·표준·생산·기도·제일·……” 이렇게 주석을 붙이는 것보다 “그저 어머니는 어머니지, 머” 하는 해석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어머니란 말은 설명하고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물맛과 공기맛을 표현할 수 없듯이 표현할 길이 없고 막연할 뿐입니다. 맹물같이 맛이 없으면서도 시원하고 달착지근하고 새콤한 맛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길래 우리는,

울면서도 “어머니!”

웃으면서도 “어머니!”

조용히 또는 화를 내면서도 “어머니” 어머니를 불러야 실감이 나는 것 같습니다.

어머니란 말이 무슨 뜻이냐고 말을 시작했으니 둔하지만 한번 뜻을 캡시다.

1. 희생의 뜻이 있습니다.

어머니는 희생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마음에 사모됩니다. 희생이란 말은 자원적 상실(自願的 喪失)이란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박혀 자진해서 희생해 버린 것과 같이 아버님의 사랑은 자원적인 상실이기에 메시아의 그림자이기도 합니다.

어머니가 자녀를 위해서 병이 나면 밤잠을 자지 못하고 간호합니다. 옷을 제대로 입지 못하고 심지어 가난한 어머니는 혼인때에 입고온 치마와 옷을 아까운 줄 모르고 뜯어서 자녀들의 옷을 해 입힙니다. 이렇게 어머니는 희생을 합니다.

2. 교육의 뜻이 있습니다.

교육적이란 말은 어머니는 자녀를 하나님의 뜻대로 기르려는 뜻입니다. 어떤 분은 “어진 어머니 한 분이 다른 교사 100명 보다 낫다”라고 하였습니다.

아주 완악한 사람이라도 “어머니-!” 하고 부르는 순간만은 선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위엄있는 왕이나 대통령도 어머니를 생각할 때에는 언제나 어린 아이가 된다고 합니다. 어머니만큼 위대한 교사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3. 승리의 뜻이 있습니다.

솔로몬은 말하기를 「일천 남자 가운데 기념자 하나는 보았거니와 일천 여인 중에 한 숙녀는 보지 못했다」고 단언을 했습니다.

이 글을 보고 땀을 낸 것은 남자요 반면에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이 한 구절 때문에 남자 앞에서 머리를 숙여야 했습니까.

그러나 한국의 여류작가 중 한 분은 “어머니”라는 말로서 여성 앞에서 뽐내는 못 남성들에게 항의하기를 “‘숙녀’보다도 훨씬 더 값있는 대명사가 여인에게 있다. 그것은 ‘어머니’라는 말이다. 지극히 평범한 말이지만 여인에게 있어서 어머니란 관사보다 더 높은 면류관은 없을 것이다. 어머니란 이름 앞에 솔로몬의 여성관은 마땅히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일천 사나이가 가운데 완전한 아버지 하나는 발견하기는 어려우나 일천 여인 중에 거룩한 어머니는 여럿을 볼 수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세익스피어도 “여자는 악하나……”라고 여성을 알 보았으나 “어머니는 강하다”고 하여 어머니는 남자보다 아버지보다도 나아가서는 하늘 아래서는 무엇보다 강함을 시인하고, 유명한 세익스피어가 “어머니”란 이름 앞에는 항복을 했답니다.

“어머니 — ” 언제나 부르고 싶은 이름입니다.

교회도 어머니의 뜻을 지닌 교회되기 위하여 기도하며 노력합시다.

(주간)

이것은 성도들의 헌금으로 마련된 것입니다

월간 총현의 목적

1. 개혁신앙의 전파
2. 말씀의 생활화
3. 성도의 교제

5월의 행사

- 1일 / 제20대 장로장립식
- 2-5일 / 빌립보서 강해 (김창인 목사)
- 6일 / 정기당회
- 7일 / 어린이주일 · 정기제직회 · 재정위원회
- 8일 / 신혼부부교육
- 12일 / 교회철야기도회
- 13일 / 경로회
- 14일 / 아버지주일 · 월간총현 5월호 발행
남전도회 · 권사회 · 산업전도회 월례회 · 대학부
헌신예배
- 21일 / 여전도회, 출판위원회월례회
재정위원회 · 선교실행위원회
- 22일 / 교육위원회월례회
- 24-27일 / 청년전도집회
- 28일 / 구역권찰회 · 전도위원회월례회 · 고등부헌신예배

제 6 권 제53호

5월호 차례

- <권두언> 어머니 / 주간2
- <이달의 말씀> 성도의 가정 / 김창인 목사3
- <이렇게 답한다> 믿는 자에게 왜
이런 재앙이 있어야 하나 / 백성룡 목사6
- <특집> 젊은이와 함께 생각한다
① 학문과 이상에 대하여 / 박성수 집사7
② 성실의 문제에 대하여 / 위영환 장로9
③ 효도와 경로에 대하여 / 송기홍 집사10
④ 이성교제에 대하여 / 윤형철 전도사11
⑤ 결혼문제에 대하여 / 김하진 목사12
- <신앙간증> 새벽에 들려온 음성 / 김의철 장로13
- <찬송가감상④> 내 주여 뜻대로 / 김중석 전도사14
- <1200자칼럼> 젊음의 표현을 / 고제원 집사14
- <책소개> 불가능은 없다 / 김순애 전도사15
- <도서정보> 4월 중 구입한 도서15
- <시편에서 읽는 주간의 만나>16
- <쉽게 풀어쓴 기독교교리③> 창조주 하나님
\ 이성근 목사17
- <직분론⑧> 주일학교 교사 / 정상우 목사18
- <구역장노우트⑤> 해외에서 교회선택문제② /
백성룡 목사19
- <이달에 만난 사람> 서만수 · 홍종만 선교사20
- <구역공과> 창세기 공부 (5월분② · 6월분①)22
- <교회소식>24
- <광고 · 편집후기>26
- <사진으로 보는 이모저모>27
- <실로암문가에서> 어린시절의 안테르펜 이야기28

표지설명 : 5월은 가정의 달, 5월의 맑고 밝음과
같이 어린이의 밝고 맑음이 가정에 늘 넘치기
를 바라며.

월간 총현

총현교회 신조

우리는 정통적 개혁주의에 입각하여 웨스트민
스터신앙고백과 대소요리문답을 우리의 신조로
하여 신앙생활을 확립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
리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목표를 둔다.

1. 말씀을 파수하는 교회가 된다.
2. 천국 일꾼을 키우는 교회가 된다.
3. 민족과 세계 복음화를 위한 교회가 된다.

성도의 가정

성경/엡 6:1-4



김 창 인 목사

<본교회 당회장>

우리 성도의 가정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에 대하여 말씀드리 보겠습니다.

1. 가정이란 어떤 곳입니까

(1) 가정은 작은 사회입니다

한 가정, 한 가정은 작은 사회입니다. 한 가정은 나라의 주춧돌입니다. 한 가정은 작은 교회입니다.

(2) 가정은 커지고 작아지는 곳입니다

이 가정은 큰 사람이 작아지는 장소이고 작은 사람이 커지는 곳입니다. 밖에 나가시면 사장이나 장관 대접 받으시는 분이 집에 돌아와 부모님 앞에서는 낮아지는 곳입니다. 코흘리개 자녀의 소원을 장관이 들어주는 곳이 가정입니다. 이렇게 가정은 높고 낮은 계급이 다 무너져서 뭉치는 사랑의 보금자리가 곧 가정입니다.

(3) 가정은 안식처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정말로 험한 물결이 거센 곳인데, 선한 일에 애쓰다가 피곤해진 몸과 마음이 편안히 쉬는 안식처가 없다면 위로를 못 받습니다. 일이란 준비하는 과정도 일이고, 실지로 하는 과정도 일이고, 쉬면서 내일을 계획하는 것이 역시 똑같은 일입니다.

경남 거창에 계시던 주남선(朱南善) 목사님은 세상을 떠나시기 바로 전에 “나는 죽도록 충성하라는 주님의 말씀이, 힘들고 피곤해도 계속 일하라고 하신 말씀으로만 알았는데, 내가 잘못 알았어... 사람은 피곤한 때에 꼭 쉬는 것이 내일에 일할 수 있는 준비이므로 쉬는 것도 일인 줄을 내가 병든 다음에야 알았구만!” 하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주목사님의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일하는 곳이 가정이고, 오늘날의 피곤을 푸는 안식처가 가정이고, 내일을 위해 식구끼리 의논하고 계획을 세우고 기도하며 준비하는 곳이 가정입니다.

2. 복되고 참 좋은 가정이 되려면 어떻게 합니까

집이 문화주택으로 번지르르하고 정원이 아름다운 화초로 단장하고, 집안에 값비싼 가구를 구비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면 복되고 좋은 가정입니까? 지위 높으신 분이, 지식이 많으신 분이 넓은 방을 책으로 채워놓고 산다면 좋은 가정입니까? 물론 그런 집이 좋은 가정의 일부분이 되고 하나의 조건이 되겠으나 전부는 아닙니다. 그러면, 진정 좋은 가정 행복스런 가정은 어떠해야 합니까?

(1) 각자가 본분을 지켜야 됩니다

가정의 식구들이 주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감사·찬송 속에서 자기의 본분 곧 계분수를 지켜야 됩니다. 부모님은 부모님으로서 아들딸은 아들딸로서 남편으로서 혹은 아내로서 자기의 본분을 깨끗하게 지키며, 맡은 책임에 충성하여 성공의 열매를 맺을 때에 각자에게 성공이 옵니다. 성공은 피차에 자랑감이 되어질 수 있을 때 이런 가정은 최고의 행복을 소유한 가정일 것입니다. 이런 가정이라면 집이 크지 않아도, 아니 나빠도 좋아요. 왜요? 장래가 있기 때문입니다.

불행한 가정은 어떤 것입니까? 집안 식구들끼리 믿을 수 없는 가정, 이것은 그릇이 깨어 금난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못 믿는 가정은 그릇이 깨어져 금이 생겼으니 담긴 물이 언제 새어 날지 모릅니다. 이런 가정은 피차에 걱정거리가 되기 때문에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한 가정은 젊은 남녀 부부가 중심입니다. 남편은 주 안에서 아내를 사랑하고 위로하고 보호해야 하고 아내도 주 안에서 남편을 사랑하고 존경하며 사랑하는 가운데 자기의 본분을 지키며 동고동락할 때 참된 부부가 됩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지으실 때에 흙으로 한 남자를 지으셨으나 여자를 지으실 때는 남자의 갈빗대를 이용하셨을 것입니다. 만일 남자의 머리뼈를 뽑아 지으셨다면 남자가 여자를 받들고 살기에 힘을 뺐었을 것입니다. 만일 남자의 발가락뼈로 만들었다면 여자를 밟아줘도 될 뻔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심장 곁에 있는 갈빗대를 취하신 것은 동등한 위치에서 서로 인격을 존중히 여기며 하나님 앞에 자기의 책임을 다하도록 똑같은 자격을 주신 것입니다.

인생은 너도 나도 나그네인데, 혼자서 십리나 이십리면 몰라도 백리나 천리를 간다면 심심하고 외롭고 피롭고 따분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둘이 가도록 하신 것이 곧 부부입니다.

부부가 동행하는 인생행로에는 꽃밭만 있는 것도 아니고 탄탄대로 아스팔트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시밭도 있고 비탈길을 타고 넘어야 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이럴 때 피차에 힘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자기의 책임을 힘껏 감당해야만 됩니다.

(2) 부모님께 효도해야 됩니다

젊은 부부는 위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자기의 신앙의 절개와 육신의 절개를 지키면서 서로가 위로자가 되고 자랑감이 되면서 부모님에게 효도해야 됩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난 젊은 부부들 중에 아들딸은 예배하면서 부모님을 구박하는 못한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성경은 무섭게 말합니다. 집안 30장 17절에 “아비를 조롱하며 어머니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고 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전쟁의 소모품이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까마귀는 시꺼먼 것이 새 중에서도 못 생긴 새인데, 그 까마귀는 나뭇가지에 앉을 때에 어미새가 앉은 가지 위에 앉는 법이 없고 꼭 그 밑가지에 앉는다고 합니다. 부모를 존경하는 영리한 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물며 사람으로 태어났다가 부모님을 존경하기는커녕 구박하는 자식이 되었다면 나지 않음만 못합니다.

에베소서 6장 3절에 부모님을 잘 모시면 “잘되고 장수하리라” 했습니다. 여기 「잘된다」는 말은 성공자가 되고, 「장수하리라」는 말은 생명의 복을 누린다는 뜻입니다.

(3) 자녀들을 잘 키워야 합니다

어느 부모님이든 아들딸에게 좋고 예쁜 옷 입히고 싶고 맛있고 영양있는 음식을 먹이고 싶은 것이 한결같이 갖는 심정일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뜻이 이러합니다. 만일 하나님께 욕되게 한 돈, 나라를 팔아먹은 돈, 의인의 원수가 된 돈, 약자가 가슴쳐 눈물과 피가 묻은 돈, 못 받은 돈으로 못 가질 돈으로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먹이는 것은 그들 몸에는 영양이 될지는 몰라도 신앙인에게는 독약을 먹이는 것입니다. 마침내 멸망과 저주의 자식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때, 내 아들딸을 키우는 데에는 깨끗한 것으로 먹이고 입혀서, 하나님을 아는 믿음을 키워 줘야 합니다. 몸통이만 키워주지 말고 지식만 키워 주지 말고, 신앙인격을 키워 주는 것이 올바른 부모님입니다.

(4) 연민하신 분은 자손들에게 바른 태도를 취해야 합니다

옛 사람들의 말에 아이들을 아기라 하고 노인들을 역시 아기라고 했습니다. 왜요? 그 까닭을 살펴보니, 아기라는 것은 자립할 수 없다는 뜻이 숨어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린애들은 부모가 없으면 자립을 못하고, 연세가 많은 분들이 아기가 된 것은 자식들의 돌보심이 아니면 자립을 못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이 많은 아기가 걱정입니다. 심신이 약해져서 활동을 못하면서라도 남은 것이 있습니다. 경험입니다. 그것 때문에 고집이 너무 셉니다. 아들딸이 아무리 말씀드려도 “젊은 것들이 뭐 안다고” 하며 입신여깁니다. 또 조그만 일에도 나무람합니다. 섭섭해합니다. 그리고는 고집을 부립니다. 어린애는 힘도 없고 경험도 없으니 부모님 말씀을 잘 들

어주는데, 나이 많은 아기는 젊은이들의 말을 안 들어주니 야단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제가 미안한 말을 합니다. 가정은 젊은이들이 노인들을 잘 모시는 것처럼 노인들이 젊은이들을 기도로 축복해 주시면서, 격려 받지 않으면 “그래, 그러자!” 하며 말을 좀 들어주자는 것입니다. 이래야 그 가정이 복 받겠기 때문입니다.

(5) 형제간에는 화목해야 합니다

형제간에는 서로 좋아도 하지만 싸움도 잘합니다. 형제들끼리 왜 싸웁니까? 싸움하는 이유가 대개 경쟁의식 때문입니다. 경쟁의식이란 좋은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 두가지 큰 문제가 생깁니다.

첫째로 교만이 생깁니다. “너는 3등했지만 나는 1등했어. 내가 낫지?” 합니다. “너는 아버지 생일에 옷 한벌만 가져왔지? 나는 두벌 가져왔어. 내가 낫지?” 합니다. 교만이 생겼습니다. 둘째로 시기가 생깁니다. “보자, 내가 이번엔 그랬지만 두고 보자!” 떨어진 사람에게는 시기가 생기고 앞선 사람에게는 교만이 생기기 때문에 화목이 깨져서 싸움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는 형제간에 경쟁의식을 떠나 서로 권면하고 붙들어주면서 “너는 네 힘껏 다해라! 나는 내 힘껏 다해라!” 이렇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화(家和)에 만사성(萬事成)”이라 집안이 화목되면 만가지 일이 이루어지리라, 이것이 복된 가정입니다.

(6) 부부간엔 절개를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부부가 각자가 자기의 절개를 지키고 자기 본분에 충실하여 지나치게 사치한 자가 되지 않고 자기의 분수를 지킬 줄 아는 부부가 되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이고 복을 받을 부부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아버지도 어머니도 아들도 딸도 형도 동생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효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 앞에 효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녀들을 바로 키워야 합니다. 형제끼리 화목해야 됩니다. 이런 성도의 가정으로 행복된 천국가정을 이루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라디오 방송 설교 안내

매주일 3부예배 실황

—음파를 타고 가는 복음—

아세아방송 1570kHz

매주일 저녁 7시 15분부터

믿는 자에게

왜 이런 재앙이 있어야 하나요?

백 성 통 목사

<부목사·구역권찰회장>

물음/제게는 아들 둘, 딸 하나가 있었읍니다. 젊어서부터 교회에 출석한 저는 부족한 대로 교회에 봉사하여 온 집사입니다.

어느 해 여름 날, 점심을 함께 먹은 두 아들이 집 앞의 냇가에 나가 수영을 하다가 그만이야 둘째 아들이 익사하였읍니다. 너무도 뜻밖의 일이라서 정신도 없었지만 그 때부터 믿는 자를 보호하신다는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왜 이런 끔직한 일이 나에게 닥쳤나 하고 하나님을 의심하면서 교회 출석이 뜸하게 되었읍니다. 죄 있는 사람에게 벌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지만 그 어린 것이 무슨 죄가 있기에, 아니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가혹한 벌을 주실까? 벌써 20년이 지난 일이나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의심하던 그 때 그 일은 아직도 시원한 대답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생각대로 죄로 말미암아 사람에게 어려가지 질고와 재난이 온 것이라 함은 옳읍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이 물에 빠져 죽는 참사를 당한 것이 누구의 죄값이나 하는 물음에는 아무도 단정하여 대답할 수는 없읍니다. 그것은 사람의 모든 불행은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왔고, 아담 이후로 사람들이 불법죄될 만한 일도 아닌 일에서나 천재지변등 자연적인 일에 재난을 당했기 때문입니다(눅 13:1-5; 요 9:1-3). 고로 불행을 당한 그 사람이 무슨 죄를 범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범죄 이외에 다른 이유로 어려움을 겪는 일이 많읍니다.

사람이 겪는 여러 재난 가운데 죽음이라고 하는 중대한 사실만을 놓고 말할 때 죽음이 어떤 사람에게는 비참한 사건으로 고통스럽게 오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장수하다가 자연스럽게 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죽었느냐 하는 것만 가지고 그 사람의 생애의 공과를 따진다는 것은 비신앙적입니다.

흔히 죽을 때 평온한 얼굴 모습으로 죽으면 그것이 곧 천국에 간 증거인 것처럼 생각하고, 죽을 때 질병이나 사고로 그 얼굴이 참혹한 모습으로 죽으면 지옥에 간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미신적이며 잘못된 생각입니다. 최후의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이 천국에 갔다거나 지옥에 갔다고 판가름할 수 없읍니다. 누구나 편안히 살다가 고통없이 조용히 죽기를 원하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 행복한 일이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악해서 의롭게 살려는 사람에게 오히려 고난과 재난이 많고 불의하게 사는 사람에게 오히려 어려움이 적은 경우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의 거지 나사로의 비유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죄인이 오히려 형통하게 죽을 때 고통도 없으나 마음을 정하게 갖고 바르게 살려는 사람에게 그 반대로 종일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정색을 보아야 하니 참으로 알기 어려운 일이라 했읍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야 이 진리를 깨달았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하다. 내가 내 마음을 정히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다. 나는 종일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정색을 보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이렇게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주의 아들들의 시대를 대하여 깨울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내게 심히 곤란하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저희 절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사 73:12-17)

사람은 항상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사는 습성이 있습니다. 6:25사변과 같이 모든 사람과 함께 고난을 당할 때와 자기 혼자만 어려움을 당할 때에는 마음의 느낌이 다른 것입니다. 사람의 간소한 실리의 일면이라 하겠읍니다. 고로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기에 앞서 하나님 앞에서 오직 진실한 마음으로 말씀에 비추어 그 진상을 바로 인식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 처음부터 다른 사람과 비교할 것이 아니라 무죄하신 예수님과 비교해야 올바른 해답을 얻을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죄가 없으신 주님은 왜 십자가의 고초를 당해야 했을까요(눅 23:41)?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아울러 귀하의 의문에 대한 해답으로 내세의 신앙과 생사에 관한 올바른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는다면 비록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여도 천국에 이르게 된다면 오히려 감사를 할 일이고(골 1:20-22) 또 세상에서 아무런 편안히 잘 살지도 그 중국이 지옥이라면 돌이켜 회개하고 그날의 심판을 면해야 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람이 살고 죽는 문제가 사람이 관여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될 때에 이상의 문제에 대한 대답은 명확한 것입니다.

젊은이와 함께 생각한다

■...지난호(4월호)에 이어 이번호에서는 「젊은이와 함께 생각한다」로 지난호에 제기되었던 문제들을 5개항으로 묶어 정리한다. 부모와 자녀간의 불협화음이, 불일치가 이번을 계기로 다소 이해할 수 있고 접근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그래서 맑고 밝은 5월을 맞으며 우리의 가정에서도 이 밝은 햇살이 넘쳐나기를 바란다. <편집자>...

기독교인의 이상과 학문



박 성 수 집사

<월간충현 편집위원>

기독교인의 이상은 무엇인가?

변화가 기독교인의 이상이라고 할 수 있을까?

기독교인이 이 세상에서 추구하게 되는 것이 여러가지이며 또 이상으로 받아 들여야 될 것이 여러가지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필자는 기독교인이 이 세상에서 추구하여야 될 여러가지 이상 가운데서 변화되는 측면을 부각시켜 보려고 한다.

첫째로 기독교 신자가 이 세상에 살 동안 끊임없이 추구하여야 될 이상은 자아의 변화이다.

인간은 외모로 보면 추악하고 미련한 측면이 잘 보이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인간의 내면세계의 감정과 내면화된 사고를 보면 인간의 타락상을 쉽게 볼 수가 있다.

사람은 자신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수없이 많은 생각과 감정이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이며 반종교적인 경우에 이를 영혼의 깊숙한 곳에 숨겨두려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영혼 속에 숨어 있는 타락상과 죄악상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자아의 변화는 그러므로 자신의 영혼 깊은 곳에 숨어 있고 자기 자신의 비인간성, 비도덕성, 비종교성 등을 명백하게 인식하고 이를 수증하여 자기 자신을 인간화하고 도덕화하고 기독교화하려고 할 때에만 가능해질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들이 조심해야 될 것은 자신의 타락상 내지 죄악상을 인식하고 이를 지나치게 경죄함으로 인해 새로운 자신의 마음을 키워갈 수 없게 하는 것이다. 죄나 실수에 대해서 자신을 지나치게 책망하면 오히려 그 죄나 실수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은 기묘한 삶의 역설적 현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따라서 자아의 변화는 눈물이나 땀 흘림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타락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존엄과 자아의 긍정적 동기가 있다는 점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에 가능해진다. 이는 죄의 용서와 구원에 대한 기독교인의 확신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말로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러한 자아의 변화는 감정의 변화를 수반하는 것이다.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저주하고 무관심한 것 등은 많은 경우에 그 사람 자신의 영혼 속 깊이 추악함과 타락된 것들이 그대로 있음을 표현하는 것이다. 기독교인의 자아의 변화는 사람과 자연과 그리고 모든 것에 대한 수용을 수반하게 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고 만들어진 모든 것에 대한 애정을 증가시키는 일이라고 하겠다.

자아의 변화는 사고와 행동의 변화를 초래한다. 비현실적이고 남을 평가하고 스스로 율법을 만들어 가는 사고와 행동에서 현실을 수용하여 변화하고 남을 사랑하고 존중하며 성경의 율법 이외의 「사적 율법」을 만드는 우(愚)를 범하지 않는 것으로 변화되는 것을 가리킨다.

이러한 자아의 변화는 자신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감정, 사고, 행동을 그대로 본받아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처럼 온전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둘째로 타인 내지 인류의 변화가 기독교인이 이 세상에 살 동안에 추구하여야 할 이상이라고 할 수 있다.

현대의 기독교인이 망각하기 쉬운 진리가 바로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이다. 좀더 극단적으로 말한다면 기독교인에게 원수는 단 한 사람도 있을 수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원수를 우리가 사랑할 때 그는 벌써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드러내는 하나의 도구가 될 수 있다.

필자의 의견으로 기독교의 속죄의 진리는 단순히 기독교라는 종교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다. 죄를 사함 받은 사랑과 용서의 경험이 없이 건전하고 사람답게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소망·사랑의 신앙이 기독교인의 것만이 되어서는 안되며 그리스도의 감정과 생각과 행동을 본받는 것이 기독교인의 것만이 되어서도 안되겠다. 그러므로 기독교인이 이 세상에서 추구해야 할 이상은 기독교라는 종교의 교세를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지상의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감정, 사고, 행동을 본받도록 하는 것이라야 될 것이다.

최근에 중현교회에서 출발하여 전국적으로 번지고 있는 북한선교회는 단순한 기독교의 전파라는 사실을 넘어선 인간성과 도덕성을 「원수」에게서도 회복시켜야 된다는 참된 그리스도의 정신을 나타내는 운동이며 모든 기독교인이 추구해야 할 이념이 현실화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죄를 용서받지 못하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지니지 않으면 누구도 사람다운 사람이 될 수 없다. 이 세상에 배어난 모든 사람이 사람다운 사람이 되도록 기독교의 진리인 사랑과 믿음과 소망과 속죄를 경험하도록 하는 것은 기독교인이 가진 높은 이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세계로 제도와 자연의 변화는 기독교인이 이 세상에 추구하여야 할 이상이다.

우리 신사들은 인간이 살고 있는 자연과 사회의 여러가지 제도를 변화시켜 기독교의 이념을 구현시키려

는 노력도 게을리해서는 안되겠다.

우리들은 우리들이 살고 있는 집·이웃·직장·학교 등의 조직도 기독교의 속죄와 사랑의 신앙을 드러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될 것이다. 병원에서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도 속죄·믿음·소망·사랑등의 기독교이념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여야겠고 행정관서에서도 같은 이념이 구현되도록 하여야 하겠다.

최근에 기독교계 일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세속화문제에 대하여, 필자는 종교의 세속화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회와 세계의 기독교화가 필요한 것이다. 기독교화가 단지 교회에 참석하는 신자의 수가 늘어난다는 것이 아니고 인간과 인간의 조직이 그리스도의 감정, 행동, 그리고 신념과 이상을 구현하려는 새로운 제기를 갖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면 그렇다는 말이다.

우주가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들의 사회와 온 세계만 아니라 모든 자연세계가 그리스도의 이상인 속죄·믿음·소망·사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스도인의 이상이 자아, 타인, 세계와 자연의 변화라고 하면 이 이념은 정열이나 열심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다. 학문이란 인간, 사회, 자연 그리고 학문 자체등에 대한 개념, 원리, 법칙, 이론 등을 가리킨다. 학문은 어떤 형태의 진리와 관련되어 있다. 그것이 논리적, 수리적 진리일 수도 있고 경험적, 분석적 진리일 수도 있고 철학적, 이념적 진리일 수도 있다.

모든 진리는 인간과 인간의 조직 그리고 자연과 관련된 여러 현상 속에 있는 사실과 사실에 대한 설명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이런 진리들은 기독교인이 기독교인의 이상을 실현하여 나아가서는 과정에 필요한 것이다. 그것이 무신론자인 생리학자가 발견한 세균에 관한 지식이면 공산주의자인 정치가가 발견한 인간관계의 법칙이건 모든 지식을 활용하여 그리스도인의 이상을 구현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

마치 우리들이 1+1=2라는 진리가 누구에 의해 주장된 것인가를 묻지 않고 이용하고 있는 것처럼 인간과 자연에 대한 진리를 배우고 익혀서 이를 기독교인의 이상을 실현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업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넓으신 도량과 마음으로 이 세상의 지식을 배우고 익혀 세상을 기독교화해 나아가야 될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학문은 자아, 타인, 인간조직, 사회, 국가, 국가관계, 자연, 우주의 여러 현상을 기술하고 설명하고 예견하고 조정할 수 있는 지혜를 준다. 이 지혜야말로 인간과 세계 그리고 우주 속에 속죄, 믿음, 소망, 사랑의 이념을 구현하는 것에 필요한 것이라고 하겠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하신 말씀은 다만 기독교에 대한 진리에만 국한해서 하신 말씀은 아닌 것 같다. 진리는 우리들을 죄에서 자유케 하고 타인의 속박과 제도의 회생에서 벗어나게 하고 자연의 횡포에서 벗어나게 하며 나아가서 자아, 타인, 세계와 자연 속에 그리스도의 정신을 구현시키도록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이상은 세련되고 객관적인 지식과 기독교인의 그리스도를 본받으려는 경건한 자세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을 것 같다.

(*)

차례

젊은이와 함께 생각한다

① 학문과 이상에 대하여

기독교인의 이상과 학문박성수 집사

② 성실의 문제에 대하여

젊은이들이여 성실성을 바탕으로 한
신앙인격자가 되어 주오.....위영환 장로

③ 효도와 경로에 대하여

효도와 경로는 주변의 쉬운 일부터
.....송기홍 집사

④ 이성교제에 대하여

세가지 증세만 치료된다면...윤형철 전도사

⑤ 결혼문제에 대하여

신자로서 결혼에 대한 바른 이해
.....김하진 목사



젊은이들이여 ! 성실성을 바탕으로 한 신앙인격자가 되어주오

위 영 환 장로

〈해의복음선교회장〉

모든 신자는 모름지기 성실성에 바탕을 둔 신앙인격자가 되어야 한다. 그것이 젊은이인 경우는 더욱 그렇다. 젊은이들은 한창 자라고 배우는 시기에 있기에 그야말로 삶의 과정에서 항상 성실한 자세로 임한다는 것이 무척 중요한 것이다. 이 성실해야 하는, 곧 성실성을 바탕으로 모든 것을 쌓아야 하는 큰 이유중 하나는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신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놀라운 힘이 있으며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성실과 정직한 자를 늘 보호하여 주신다는 사실이다.

1. 어떻게 성실할 수 있나?

모두가 성실하게 살기를 원한다. 매사에 충실하고 정직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도 그러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 생활의 전반에 성실성을 바탕으로 할 수 있는가.

그것은 우리의 모든 생활의 분야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선행을 힘써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을 늘 의뢰하는 것이 성실할 수 있는 길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성실로 식물을 삼으라고 교훈하고 있다.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은 이 성실로 점철되어 있지 않으면 안된다. 바로 사물들, 사건들, 한 사람을 대할 때도 우리는 마음과 말과 행동이 성실한 가운데 대해야 한다.

이처럼 성실히 행하는 자는 영육간에 구원을 받게 되고 진실한 자는 친한 자 앞에 서지 않고 왕 앞에 선다 하였으니 왕되신 우리 주님 앞에 설 때 큰 상급을 받는 은사가 있게 되는 것이다.

2. 훌륭한 모범들

우리에게는 이 성실한 삶에 훌륭한 모범을 보인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 중에 한 사람인 요셉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의 성실은 여러면에서 찾을 수 있다.

첫째가 부모의 말에 절대 순종하였다. 형들을 찾아 세겔으로 값지던 만나지 못하고 어려운 광야길을 거쳐 도단까지 가서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였다.

둘째는 하나님을 바라고 인내하였다. 종으로 팔려가는 그는 천대와 박대 속에서 지냈지만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인내하며 장래의 길을 예비하고 인도하실 하나님을 바라보았다.

세째는 성결함으로 자신을 지켰다. 청년때는 유혹이 많고 범죄하기 쉬운 때이다. 특히 이성문제에 있어서 더욱 그럴 것이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믿음으로 물리쳤다.

네째는 늘 은혜 충만한 생활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늘 지켜 주셨다. 꿈 해석하는 은사를 주셨다. 그것은 어려운 중에서도 늘 은혜 충만한 생활을 했기 때문이다.

다섯째로 깊은 사랑과 넓은 포용력이 있었다. 종년

에 애굽을 구하고 자기의 동족을 구했다. 특히 원수같은 자기 형들을 대할 때 사랑과 도량은 바다보다 넓고 깊은 것이었다.

여섯째로 좋은 결과를 맺었고 충성했다. 바로 왕 밑에서 80년을 지내며 많은 치적을 쌓았다. 하나님 앞에 충성은 말할 나위가 없다.

일곱째로 훌륭한 신앙인격자의 본이 되었다. 그의 훌륭한 신앙인격은 타국 사람까지도 숭앙할 정도였고 그 후대의 신앙인들에게는 더할 나위없는 훌륭한 본을 보여주고 있다.

무엇보다 우리는 주님께에서 완전한 성실의 본을 배우게 된다. 주님은 30년의 생애를 부모님에게 극진한 효성을 다 하였고, 공생애 3년을 통해 인간의 생명을 귀히 여기시고 영육의 구원을 위하여 피·땀·눈물 그리고 온 정성을 기울이셨다.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키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충성하셨다.

3. 젊은이들에게 바라고 싶은 것

성실을 평가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경향이 많은 것 같다. 그러나 나는 성실성은 절대적인 것으로 본다. 따라서 평가하고 평결할 필요성이 없는 것이고, 해서도 안된다고 생각한다. 아무리 학문이 발달하고 물질문명이 발달하고 과학시대라고 하지만, 성실이란 조금도 변함이 없다. 특히 성실은 신앙으로 이끄는 귀한 보배가 되는 것이다.

자기만 묵묵히 일하고 남을 돌보지 않는 것은 참 성실이라 볼 수 없다. 성실은 신앙의 기반이므로 나만의 유익이나 입장에 국한한 것이 아니라 남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자세에 있을 때 온전한 성실성을 찾을 수 있다. 요셉의 생애를 배우라.

신앙생활에 있어서 또는 더 나은 도덕관을 세우기 위해서 특히 젊은이들에게는 용기·희락·열성·희생 등을 갈망하는 의욕이 많음을 찬양할 일이므로 여기에 우리는 좀 더 진지하게 길게 성실하게 사고하고, 관찰하고, 실행한다면 적지 않은 위험의 요소를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주님의 30년의 사생애가 오늘날을 위한 준비기간이었다면 또 여러분 젊은이의 지금까지의 생애가 장래 내 나라, 내 민족의 주인공으로서, 사명을 다할 일꾼으로서 준비기간이었다면 이제도 늦지 않다. 올바른 인생관, 국가관, 그리고 신앙관을 가지고 성실성을 바탕으로 한 신앙인격자가 되도록 노력하기를 당부한다.

성실은 하나님을 아는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분복(分福)인 것을 알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성실한 성도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효도와 경로는 주변의 쉬운 일부터

송 기 홍 집사

<청년부 교사>

요사이 우리 주변에 흔하게 눈이 띄는 표어가 있습니다. 즉 「부모님께 효도 나라에 충성」하고 육교 난간이나 학교 건물 등에는 거의 예외 없이 써 붙여 있고 한 편으로는 매스컴을 통해서 새마을 갖기 운동이나 충효 사상에 대하여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값이나 아 파트 분양가에 대하여 들먹거리다가 보면 품귀현상이 오고 그 다음에는 값이 쾡쾡 뛰어나오기 마련입니다. 충효에 대하여 부쩍 강조하는 것을 보니 아마도 충효의 품귀(?) 상태가 되었거나 멀지않아 그 값이(?) 폭등할 것만 같습니다.

아버지 효를 섬기는 것을 효(孝)라고 합니다.

그런 효도란 쉬운 것인가? 어려운 것인가? 그 정답은 쉬우면서도 어렵고 어려우면서도 쉬운 일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무릇 사람의 자식된 자, 그 부모님을 효도롭게 섬기려면, 좋은 옷과 맛있는 음식과 거처를 편안하게 하여 드리고 또 그 마음을 늘 기쁘시게 하여 드려야 할 것입니다. 호화주택에서 좋은 옷과 맛있는 음식 잡수시는 부잣집 할머니가 항상 얼굴을 찡푸리고 계실은 웬 일이며, 초라한 집에서 남루한 옷차림과 값싼 음식을 잡수시는 할아버지는 얼굴에서 늘 웃음이 떠나지 않으니 어찌된 영문일까요? 한마디로 옷과 음식과 재산만으로는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결론입니다. 무엇보다도 부모님께 순종하고 그 뜻을 잘 받들어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효도의 근본이라 생각됩니다.

8·15해방 이후로 거세게 밀어닥친 서구 자유의 물결을 잘못 받아 들인 사람들이 자유를 방종으로 잘못 알고 제멋대로 제멋대로 살다가 보니 옷사람은 물론 자기 부모님마저 눈에 보이지 않게 되고 오히려 자기가 제일인양 옷사람을 멸시하고 부모님의 말씀을 어린 아이보다도 못하게 취급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세상 살이에 경험 많으신 머리 하얀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알지도 못하면서 쓸데없이 참견한다고 통명스럽게 쓰아 붙이는 자식들이 적지 않으니 부모님의 마음은 서글프고 노인들의 입장에서는 「망할놈의 세상」이라고 탄식을 하게 됩니다.

어느 여자 대학 어떤 조사질문에서 학생들에게 여러분이 새 집을 짓는다면 방을 몇개쯤 만들고 누구 누구에게 사용하게 하겠느냐고 물었더니 가정부 방은 거의 내놓지 않고 대답하더라 합니다. 놀라게도 절대 다수가 시부모님 모실 방에 대하여 언급이 없어서 시부모님은 어디에서 모셔야 하느냐 했더니 그제서야 깜짝 놀라서 뿔뿔매더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장래 며느리가 될 여대생들의 의식구조는 왜 이렇게 되었는지 웃고만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옛부터 불효자는 짐승만 못하다고 합니다. 까마귀는 반포기모(反哺其母)한다고 하는데 즉 새끼가 최소한 어머니에게 받아 먹은 것 만큼 먹이를 물어다가 어머니를

먹인다고 합니다. 또 나무가지에 앉을 때에도 어머니보다도 위가지에 앉지 않는다고 합니다.

효도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십계명 가운데 다섯번째요 사람에게 대하여 지켜야 할 첫번째가 “네 부모를 공경하라”(출 20:12)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효도하는 사람에게는 여호와께서 주신 땅에서 잘 되고 생명이 길도록 축복하시고(출 20:12 엠 6:1-3) 반대로 불효자는 물에 맞아 죽고(신 21:18-21) 짐승의 밥이 되는(잠 30:17) 저주를 받습니다. 중국의 유명한 공자도 충성스러운 사람은 효자의 가문에서 구해야 한다(忠臣必於孝子之門)하였고 3천가지 형벌 중에 불효보다 더 큰 죄가 없다(五刑之屬三千其罪莫大於不孝)고 했습니다.

특히 우리 기독교인은 누구보다도 부모님께 효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요 1서 4:20) 하심을 볼 때 형제간에 우애하지 못하고 부모님께 효도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말은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라면 부모님께 효도와 형제우애는 재론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언제부터 부모님께 효도를 해야 하는가? 사업에 성공한 후에, 아니면 크게 출세한 후에 하여야 되는가? 부모님은 자식이 마음둘러서 효도할 때까지 이 땅위에서 기다리고 계실 수 만은 없습니다(樹欲靜而風不止, 子欲孝而親不待). 아들이 효도하려고 했더니 아버지는 벌써 세상을 떠나신 후였습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은 집이 가난하다고 핑계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각자 가정의 형편 따라서 최선을 다하면 되겠기 때문입니다. 나날 때 인사하고 돌아와서 말씀 드리는 것(出告, 反面) 가장 작은 일부터 쉬운 것부터 시작하면 될 것입니다. 부모님 발걸음을 어린아이 기르는 정성으로 바꾸면 될 것입니다.

또한 노인을 공경하는 문제는 자기 아버지를 사랑하고 공경하는 사람은 남에게 거만하거나 오만하지 않는 것입니다. “젊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여 아버지께 하듯하며”(딤후 5:1) 내 집 노인 받드는 것처럼 남의 노인도 받들라(老吾老以及人之老) 더 이상 탄 말이 필요없는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갈 6:7)고 합니다. 내가 부모님께 효도해야 나도 아이들에게 효도를 받고 웃어른 공경해야 나도 역시 후배에게 대접받을 것입니다. 한 가지만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가정에서 일상생활 중에 옛사람들의 착한 행실과 아름다운 이야기를 대단치 않은 이야기를 하듯 늘 아이들에게 들려주면 자연히 몸이 익히고 생활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잠 22:6-7). (*)



3가지 증세만 치료된다면

윤 형 철 전도사

<중동부지도>

지금까지 교회는 교회 안에 있는 젊은이들의 이성교제에 대하여 무척이나 조심스럽게 주시해 왔으며, 한편에서는 대체로 부정적으로 보아 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도 그럴 것이 교회 안에서의 이성교제가 왕왕 교회 안팎에 부덕스러운 영향을 많이 끼쳤고, 본인들의 신앙생활에도 적지 않은 방해가 되어 왔기 때문이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의 이성교제가 왜 이런 문제들을 일으켰을까? 그 이유는 첫째, 최근까지 교회는 한국적 윤리관의 전통적 관념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의 젊은이들의 남녀교제를 부정적으로 생각해 왔고, 심하게는 신앙생활의 해충처럼 여겨 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교회의 일반적 생각이 오히려 교회의 젊은이들로 하여금 은폐된 음지에서 불건전한 이성교제를 하게 만들었다. 둘째는, 교회의 젊은이들의 신앙에 이원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과 교회 밖에서의 일상생활을 별개의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무소부재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면전」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사실을 미처 생각지 못하고 있다. 자신의 생활이 사람의 눈에 띄지 않으면 하나님의 눈에도 은폐되어질 것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이성교제를 함에 있어서 스스로를 속이고, 교회에 덕을 세우지 못하는 것이다.

이와같은 교회와 교회 젊은이들의 잘못된 생각을 앞으로 우리 후배들에게 계속 물려주어야 하는지? 사회는 뒤지 않고 달리고, 젊은이의 세계는 급진적으로 개방되어가고 있는데 교회와 교회 젊은이들은 어떻게 해야 신앙인다운 이성교제를 할 수 있는지? 한번 재고해 볼 만한 일이다.

교제는 우리의 삶의 영역을 넓혀 주며 우리의 삶을 풍요하게 만든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우리 신앙의 영역을 더욱 넓혀 주듯이, 사람 사이의 교제도 우리의 삶의 영역을 넓혀준다. 특히 이성과의 만남은 삶의 새로운 영역을 호흡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 그러나 본질상 영적 소속이 다른 신자와 불신자간의 교제는 결코 우리에게 깊은 만족감을 주지 못한다. 신자에게 있어서 마음과 마음이 만나고, 영과 영이 부딪치는 교제는 역시 신자간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특히 결혼을 앞둔 젊은이들에게는 동질(同質)의 신앙인을 찾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신자가 불신자와 결혼할 경우 그는 불신결혼의 댓가를 치루어야 하며, 때로는 그 댓을 일생 갚지 못하는 고통스러운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또 같은 신앙인이라 할찌라도 신앙생활의 환경과 개인에 따라서 각각 그 신앙의 색채(color, style)가 조금씩 다를 수 있다. 그러나 같은 교회 안의 신자

는 대체로 동질의 신앙을 소유하게 된다. 그러므로 같은 교회에서 같은 신앙생활의 분위기 속에서 같이 봉사하던 젊은이들끼리 결혼한다는 것은 행복한 결혼생활을 위해서는 참으로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교회는 교회 안의 젊은이들의 이성교제를 안전한 빠진 수류탄을 보듯이 위험스럽게만 보기보다는 진정한 교제가 무엇인지 보여주며 그리스도 안에서의 진정한 교제를 통하여 자연스러운 태도를 가지도록 긍정적으로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한편 교회 안의 젊은이들은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이성교제, 자기중심적이고 감각적인 이성교제, 위미적이고 흥미본위의 이성교제가 교회 안팎에 얼마나 큰 상처를 남기며,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는 사명의 음침한 골짜기로 치달는 지름길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성에 대한 감정적 표현을 인내와 숙고로 잘 분별해야 하며, 일시적 감정을 경솔하게 행동에 옮기지 않도록 자제해야 한다. 왜냐하면 사람의 모든 행동에는 반드시 책임이 수반되기 때문이다. 즉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말은 그 일의 결과에도 책임을 질 수 있다는 뜻이다. 자신의 말·행동·결정·감정의 표현에 대한 책임의식이 결여될 때 인간사회는 무질서와 혼돈 속에서 방향을 잃게 된다.

교회 안의 젊은이들에게 걸리기 쉬운 세가지 병이 있다. 하나는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을 소유했으면서도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생활방식을 부러워하고 모방하는 환자들인데, 이들은 자기 소속감을 망각한 「자기의식 결핍증」에 걸린 환자들이다. 둘째는 신앙생활을 직장생활처럼 생각하는 환자들인데, 직장생활을 가정생활에까지 연장시키려 하지 않는 것처럼 이들은 신앙생활과 일상생활을 분리시키고 있다. 신앙은 일상생활의 뿌리요, 일상생활은 신앙의 열매로써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속에서 신앙과 생활을 일치시키지 못하는 「자기분열증」 환자들이다. 세째는 자신의 생각이나 생활이 사람의 눈을 피했다고 해서 하나님에게도 숨겨졌다고 생각하는 「자기 착각증」에 걸린 환자들이다. 이런 병에 걸린 젊은이들은 교회 안에서 교회 안팎에 덕을 끼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이성교제를 할 자격을 상실한 자이다.

그러나 교회의 모든 젊은이들이 위와같은 3가지 사실—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신앙과 생활의 일치, 하나님의 면전에서 생활—을 바로 인식하고 생활 속에서 실천한다면 교회 안에서의 이성교제는 후배들에게 본을 보이고 교회 안팎에 덕을 세우고 나아가서는 필히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확신한다. (*)

신자로서 결혼에 대한 바른 이해

—불신자와의 결혼을 중심으로—



김 하 진 목사

<산업전도교육부 지도>

우리 교회 성도들의 가정에 있어서 결혼 적령기를 맞이한 젊은 남녀나 자녀가 있는 부모들은 누구나 다 이 결혼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 결혼이란 혼기의 나이가 되었다고 해서 누구든지 쉽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에 본인 자신은 물론이요 가정에서 걱정거리가 되고 있는 것을 가끔 찾아 볼 수가 있다.

1. 기독교적 결혼관

가. 먼저 결혼이란 무엇을 의미하며, 또 누가 제정한 것일까? 성경은 이 질문에 대하여 분명하게 대답해 주고 있다. 결혼이란 개성이 다른 한 남자와 여자가 서로 만나 “한 몸을 이루는 것”(become one 마 19:5)이며,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창 2:18, 24 마 19:4-6)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라는 결혼의 선언을 진정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저 둘이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나, 좋아한다는 것이 참된 결혼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합시켰다」는 것에서 결혼의 확실함과 불가침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나. 또한 이 결혼이란 두 사람의 한 몸을 이룬다는 육체적 결합만이 아니라, 인격적인 결합이 있어야 한다. 성경은 이 문제(become one)에 있어 여러 곳에서 육(body)과 혼(mind)이 영(spirit)과 더불어 조화, 혹은 결합되도록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다.

이것이 결혼에 있어 깊고, 신비스러운 관계인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을 떠난 남녀의 결합이란 있을 수 없는 것이며, 만약 결혼이 성립된다고 하더라도 멀지 않아 불행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결혼은 반드시 신앙과 사랑을 바탕으로 한 친 인격이 동원되어진 결합이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에도 보면 『혼인은 양성의 합의로서 기초가 성립되고 부부가 동등의 권리가 있음을 기본으로 하여 상호 협력함으로써 유지되어야 한다. 배우자의 선택, 재산권, 상속, 주거의 선정, 이혼 및 가족에 관한 본질적 평등에 입각하여 제정되어야 한다』(헌법 제24조)고 규정하고 있다.

다. 그런데 이 양성이 모여 성의 공동체를 이룬 곳에는 서로 사랑과 신뢰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톨스토이(Tolstoy)도 『결혼을 신성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사랑이며, 진정한 결혼이란 사랑으로 신성해진 결혼뿐이다』고 말했다. 또한 성경은 결혼을 통한 부부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로 비유하고 있다(엡 5:22-28).

이 사랑은 어디까지나 에로틱한 사랑이 아닌 아가페적 사랑이어야 할 것을 말한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여 자신의 생명을 버리신 희생적인 사랑

이다. 남편은 이 사람을 가지고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고 두려움과 존경을 가진 인격적 순종으로 남편을 따를 때 거기에 신뢰가 생기고 행복이 깃들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결혼이란 자기것만 내세워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자기는 죽고, 상대자를 살리려는 기독교적인 희생적 사랑이 있어야 한다. 여기에 신앙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2. 배우자의 선택

서양 사람들은 배우자를 선택할 때 ABCDE의 5가지를 본다고 한다. 그것은 A(Age, 나이), B(Beautiful, Heart 미모, 마음씨), C(Condition, Health, 건강), D(Doctor, 학력), E(Economic, 경제력)이다. 그 다음으로 보는 것이 F(Faith, 신앙)이다. 이렇게 그들은 배우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A로부터 E, 혹은 F까지의 조건을 따서 배우자를 결정한다고 한다. 아마 우리나라 청년들도 대략 이와같이 않을까? 그러나 배우자를 선택하는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자기가 가진 최선의 것을 영원히 바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할 것이다.

가. 그러므로 결혼은 사랑과 믿음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여기 미국의 저명한 가정문제 전문가 듀발(Evelyn M. Duvall) 박사가 「사랑의 Test」에서 6가지 제시한 것을 소개한다.

① 사랑은 언제나 밝을 향해 나아간다. 자기 중심적 사랑은 아직 어린애를 면치 못한 초아적 사랑이고 성숙한 사랑은 타자 중심이다.

② 참된 사랑은 에너지를 풀어 놓아 준다. 어떤 사람은 사랑에 지나치게 몰두할 때 감정의 세계에 깊이 얽혀져서 다른 아무런 일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있다. 공부도, 먹기도, 일하기도 싫어지고 아무런것도 하기 싫어진다. 그러나 이런 사랑은 참된 의미에서의 사랑이 아니다. 오래 계속되는 사랑은 창조적이다. 즉 그런 사랑은 일을 위해서 커다란 에너지를 풀어 놓아 준다. 한 소년이나 한 소녀를 진정 사랑했을 때 그는 무엇이든지 완성시키고 성취하려는 데 열중한다. 그들의 공통적인 희망과 꿈은 종전의 어느 때보다 더 생산적이 된다.

③ 사랑은 분담하기를 원한다. 이것은 사랑이란 서로 일을 분담하려는 데서 가장 잘 나타난다는 것이다.

④ 사랑은 「우리 감정」(We feeling)이다. 즉 사랑하는 순간부터 「나」 대신에 「우리」라는 개념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계획한다.

⑤ 사랑하는 것과 동시에 서로 좋아해야 한다. 오래 지속되는 사랑을 위해서는 순수하게 서로 좋아하는 건고한 기초가 있어야 한다.

⑥ 시간이 사랑의 가장 확실한 시금석이다. 사랑에

대해 의심하는 감정을 가질 때는 시간이 이를 말해 준다. 여러가지 어려움이나 피로움과 즐거움을 통해서 여전히 끈기있게 계속되는 사랑은 앞으로 긴 세월동안 계속될 가능성을 가진 사람이라 할 수 있다.

나. 그러나 우리 기독교 청년들은 무엇보다도 깊은 영성(deep spirituality)을 바탕으로 한 신앙이 있는가를 먼저 보고 배우자를 선택해야 할 것이다.

성경은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명예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고후 6:14-15)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배우자 선택에 있어 절사람보다는 속사람의 됨됨이를 보아야 할 것이다. 먼저 상대의 신앙을 본 후에 다른 여러가지 조건도 살펴야 할 것이다. 어디까지나 신자는 불신자와 명예를 같이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교훈이다.

주 안에서 믿음으로 결합된 결혼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성도로서의 공동목표를 향해 힘차게 창조적인 삶을 살아 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어떠한 자기 합리화한 불신자와의 결합을 이룬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며, 하나님의 법을 위배한 결과가 되므로 하나님의 축복을 떠난 불행한 결혼이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

◆ 신앙간증 ◆

새벽에 들려온 음성

김 의 철 장로

<유치부 부장>



서울시내 K대학교에서 근무하던 1966년 11월경에 있었던 일이다. 내 방으로 김춘근이라는 학생이 찾아와서 『지난 주일 헌신예배에는 많은 은혜를 은교회가 받고 감사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큰 부탁이 있는데 다름이 아니오라 훌륭한 목사님을 모시지 못할 바에야 주일 낮과 밤, 수요일밤 설교만 해주실 강단책임자를 구하던 중 선생님의 설교를 듣고 제교회에서 전도사로 모시는 교섭을 제가 맡고 오늘 특명전권대사 자격으로 찾아왔습니다』하는 것이었다. 나는 인생의 목표가 목사될 사람도 아니고 현재 다니는 교회에 중고등부를 맡고 있고 대학에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없으니 다른 분을 찾아보도록 권하였다.

그러나 그 학생이 「선생님 그러면 기도해서 결정하시는 것이 어떻습니까?」하는 이 말에 껌쩍 못하고 그러면 기도해서 가부를 결정하자고 약속을 했다. 내 속으로는 “그거야 내일 만나서 못하겠다고 하면 되는 것이다” 생각했던 것이다.

그러나 나는 경진치 못한 사람이었다. K대학교에서 H교수와 만나 퇴근하기가 바쁘게 기원에 가서 바둑으로 흥을 돋우고 밤늦게 집에 들어가 잠자리에 들려고 하니 밤 12시 5분 전이었다. 일단 베개를 베고 누웠다가 문득 오늘 학교에서 “선생님 기도해서 내일 결정하십시오” 하던 약속을 생각하니 그래도 양심이 있는지라 한쪽 발은 길게 늘고 한쪽 발은 꾸부리고 한쪽 팔은 방바닥을 잡고, 한팔은 이불을 덮고 참으로 경진치 못한 자세로 기도를 드렸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오늘 학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부족한 것이 송정장로교회 전도사로 초빙을 받았읍니다. 하나님, 내 대신 훌륭한 주의 사자를 그 교회에 빨리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가 계시오면 꿈이나 음성등

으로 지시해 주시고 없으시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신 줄 알고 전도사 초빙을 거절하겠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다. 이튿날 새벽 5시 바로 잠깁 때이었다. 천정 쪽에서 내 귀에 분명한 음성이 들렸는데 『로마서 10장 8절 이하를 읽어보라』는 음성이었다. 그때까지 로마서 10장 8절 이하의 어떤 말씀이 있는 귀절인지 전혀 몰랐는데 찾아본즉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뇨 말씀이 네게 가까와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10장 9절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계속해서 10절 11절—21절까지 읽을 때 마치 광산에서 광맥을 찾은 흥분된 심정이었다. 나는 조용히 무릎을 꿇고 영드려서 기도했다.

그날, 몇몇 성도님들과 전화로 의논한 결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서는 안된다고 결론을 내리고 그날 학교에서 학생에게 전도사로 일할 것을 약속하고 개척교회를 맡아서 일을 하게 되었다. 1년쯤 있다가 내가 목사님을 모시고 경복위촉까지 받아 주고 그 교회를 떠났는데 처음 가마니를 깔고 장년 80명이었던 교회가 지금은 장년만 수백명이 모이는 교회로 장성했다.

나는 그후 오늘날까지 성경을 겨우 신구약 일곱 번 읽었는데 그때 그 상황에서는 성경 전체를 통하여 롬 10장 8절 이하와 같은 적절한 말씀이 없음을 보고 다시 한번 놀랐다. 나의 성경책 롬 10장 8절 이하의 붉은 줄을 그어놓고 1966년 11월 1일 새벽 5시라 적어놓은 후 이따금 이 말씀 읽고 찬송하고 기도하면 그때마다 새 은혜가 넘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점음의 표현을

고 제 원

「세대차」라는 것은 어느 사회에나 있는 것이며 또 있어야 하는 것이며 또 있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많은 사람들이 그 차이의 벽을 좁혀 보려고 수단과 방법을 아끼지 않았지만 역시 그 벽은 그렇게 쉽게 좁혀지는 것이 아닌 줄 안다.

요즈음 다시 이 벽을 좁혀 보려는 젊은이들의 외침이 들려오곤 한다. 역시 젊었기 때문에 패기로써 꼭 실현시켜 보겠다는 의지는 가히 칭찬해 마지 않는다. 그러나 문제는 얼마나 세밀한 계획이 있었느냐 하는 것이다.

한날 젊음을 기성세대에 대한 비판의 수단으로 서만 삼으려는 어리석은 이들이 너무도 많으며 무한한 가능성을 가능케 하지 않고 불가능하게 유도하는 젊은이 또한 다수이다. 무한함만 밀다가 무한함의 한계점에 도달하여 젊음을 젊음으로 보내지 못하고 단지 불평과 비판으로만 보내는 젊은이들이 너무도 많은 현실이다.

르호보암 왕의 젊음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은 둘로 나뉘어졌었고 다윗도 젊음으로 큰 실수를 범했던 것이다. 이것은 바로 젊음을 젊음으로 올바르게 보내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경솔하게 행동한 좋은 표본이 되는 것이다. 경험 부족에서 오는 실수는 젊은이들에게 많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론과 실제에는 차이가 있다”라는 말은 갖출업한 젊은이들을 위한 말일 것이다. 흔히들 젊은이들은 이론만 앞세우고 그것이 실제에 맞든 안 맞든 주장하는 경향이 너무나 많은 듯하다. 이론만으로 기성세대를 비판치 말고 실제에 조화 내지는 적응시킬 수 있는 이론을 내세워 올바른 비판과 불평을 해야 함이 진정한 의미의 젊음의 표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세대차」를 좁히려는 방법은 대화의 광장을 갖는 것일 것이다. 이 대화의 광장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접근하는 좀더 적극적인 자세의 젊음이 필요한 줄 안다 주체성 없이 흔들리는 젊은이보다 자신보다 남의 생활을 비판 내지 불평하려는 비틀어진 젊은이보다, 관찰력 없이 표면만 보고 전체를 판단하여 지껄이는 무책임한 젊은이보다, 자신의 주장이 못 젊은이의 주장인양 허공에 외치는 젊은이보다는, 젊음의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 미래 지향적인 자세의 구체적이며 적극적인 접근과 건전한 도전을 과감히 행하려는 젊은이가 더 요구되는 듯하다.

내 주여 뜻대로(새 602장)

김 중 석 전도사

<제이성가대 지휘>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은 몸과 온 영혼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합소서.

모처럼 기도의 시간을 갖기 위하여 기도원에 갔다. 평소 때보다 기도에 힘이 나는 것 같았다. 밤이 어느 정도 깊어지자 나는 방으로 돌아와 촛불에 비추어 성경을 조금 읽다가 졸깃 잠이 들었다. 얼마를 지났을까? 나는 잠결에 스며드는 찬송소리에 점점 정신이 맑아짐을 느꼈다. 그리곤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였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은 몸과 온 영혼 다 주께 드리니

정말로 이 사람은 이 순간 간절한 심정으로 몸과 영혼을 기울여 찬송하고 있구나 하는 것이 그 부르는 곡조 속에서 느껴졌다. 이미 불은 꺼져 잠잠할 터인데 그는 기도하다가 다 못해 복받쳐 오르는 심정을 찬송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되었다. 그에게는 무언가 애타하는 것이 느껴졌다. 우리는 문제를 느낄 수 있어야 할 것이고 그 문제를 숨김없이 드러내어 놓는 것이 기도가 아닐까? 그의 찬송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할 순진한 태도를 보는 듯했다.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합소서

이 찬송시를 지은 분은 슈몰크(Benjamin Schmolck 1672-1737)라는 독일 사람으로 루터파 교회의 목사이다. 그는 슈바이트르에 있는 자유교회에서 평생을 시무하였는데 고생이 많았다. 우선 그 지역이 가톨릭 지역이어서 36개 마을을 위해 개신교회는 하나만 세우도록 허용되었고 그것도 도시에서 떨어진 외딴 곳에 세워야만 했다. 개신교 목사는 36개 부락에 단 두 사람 뿐이었는데 이 두 목사도 가톨릭 영국의 허락 없이는 교인들에게 성찬을 베풀 수 없게끔 되어 있었다.

설상가상으로 슈몰크 목사는 백내장병(病)과 반신불수를 앓았다. 이러한 답답하고 절박한 환경 속에 있었으나 그의 영혼은 크게 여유를 얻어 900편 이상의 찬송시를 쓸 수 있었다. 영원한 빛 예수여(새 72) 광채나는 성전 문아(새 79) 거룩하신 예수여(새 568) 내 주여 뜻대로(새 602)가 새찬송가에 수록되어 있다.

곡조는 당만과 음악의 개조(開祖)라 할 수 있는 베버(Weber)의 곡이다. 오페라 「마탄의 사수」(또는 자유의 사수라고도 함)에 나오는 곡인데 홀브루크(Joseph Holbrook)가 편곡했다. 원곡이 세속음악이지만 찬송가의 내용과 잘 어울린다고 느껴진다. 또 편곡이 신앙적 분위기를 잘 살리고 있다.

대개의 찬송이 다 그러하지만 이 찬송은 특히 기도하는 심정으로 불러야 하겠다. 그러므로 약간 천천히 부름이 좋겠다.

◎ 도서 정보

도서실은 여러분을 위해 문을 활짝 열어 놓았습니다

우리 교회의 도서실은 신학 및 기독교 관계와 그밖에 많은 서적을 구비하고 성도들이 문헌을 통하여 은혜를 받으며 신앙에 관한 진리 탐구를 하도록 많은 이용을 바라고 있습니다.

4월 중 구입한 도서

1. 성서

- 가. 명화성서/성서교재간행사편 672면.
나. 가정성서/캐슬린보스 저 6권.

2. 구약사·신약사

- 가. 구약에인서/원용국 저 317면.
나. 모세오경/원용국 저 190면.
다. 성경의 각종나무 비유/유인식 저 210면.

3. 기독교윤리

- 가. 예수와 의미요법/제프리 로버트 저 163면.
나. 인간치유/터니에이 풀 저 91면.

4. 교회인물사

- 가. 흑기자서전/흑기 244면.
나. 조지 물러의 자서전/조지 물러 176면.

5. 기독교종교학

- 가. 민속종교와 한국문화/유동식 저 325면.
나. 비교종교론/채필근 저 372면.

6. 기독교목회·설교학

- 가. 삼박사 구원/조용기 저 348면.
나. 교회교육 핸드북/감리교회신학대학 270면.
다. 재림의 징조/워티 로버트 저 124면.
라. 성경연구와 핵심설교/이찬영 저.
마. 목사와 설교/존즈 로이드 저 358면.
바. 교회성장과 하나님 말씀/알란 저 150면.

7. 기독교교육

- 가. 교수계획/사이즈모어 존 저 145면.
나. 성경읽기 365일/최삼우영 저.
다. 유아교육과 교회/기독교교육협회 편.
라. 하나님 힘내세요/에릭, 스튜어트 공저.
마. 교육현장 전서/배영사 편 전 10권.

◀ 도서실 소식 ▶

새로 귀중한 원서 100여권 본교회 제19대 장로들 기념으로

박윤선 박사 주석 1권등 국내서적 22권과 함께 새로이 원서 렌스키 주석(Lenski's Commentary) 등 귀중한 외국서적 100여권을 본교회 제19대 장로들인 이원철·지금산·윤명식·김의철·조선근·김은호·오태희 장로가 장로취임 및 장로장립 기념으로 지난 4월에 들여왔다.

◇ 도서 3,000권 돌파!

그간 성도들의 끊임없는 성원을 받으며 자라는 본 도서실은 4월말로 장서 3,000권(현재 3,075권 보유)을 확보하는 경사를 맞았다.

<독서 캠페인>

□ 한 에 책 한권씩 읽읍시다

.....신문·잡지 얼마를 읽는 것으로 독서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매일의 생활에 여념이.....
.....없는 우리 평신도들로서는 중요성을 인식하.....
.....면서도 좀체 책을 대하지 못한다는 것이 슬.....
.....김없는 고백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태로 머.....
.....무를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보.....
.....템이 되는 귀한 책들을 골라서 적어도 한달.....
.....에 책 한권씩은 꼭 읽는 습관을 키워가자는.....
.....의도에서, 금년에도 우리는 이와같이 캠페.....
.....인을 벌입니다.

—「월간충현」편집실

◇ 추천하고 싶은 책 ◇

불가능은 없다

로버트·H·슬러저/대한기독교서회 발행

사람들은 누구나 그 나름대로의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원한다. 그러나 그 효과적인 방법을 알지 못하여 실패를 거듭하거나, 부정적이고 소극적 사고방식으로 인해 일을 시작도 해보지 못하고 일생을 마치는 사람들이 많다.

본서의 저자「로버트 슬러저」목사는 “믿음과 용기만 있으면 불가능은 없다”라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고의 철학으로 세계 역사상 유례없었던 초현대식 예배당인 워크인 드라이브인 교회(walk-in drive-in church)를 지어 수많은 부정적 사고주의자들을 깜짝 놀라게 했던 것이다.

바로 이 책은 불가능을 넘어 자기 꿈을 실현할 수 있었던 한 사람의 정신과 영혼이 깃든 책이다. 확적인 딱딱한 이론이 아니라 체험에서 얻어진 여러가지 생동적인 간증들과 기독교적인 메시지들로써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서 이룩하고 싶은 목표를 달성하는 필요한 귀중한 원리와 지침들을 간결하게 제시해 주고 있다.

꿈을 가지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성공적인 삶을 원하는 젊은이들이나, 더욱더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으면 적극적 사고주의자가 됨으로써 자신의 향상과 행복에 실제로 방해가 되고 있는 것들과 혹은 방해가 된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정확하고 성공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이다.

더우기 성전건축을 해야 하는 큰 사명을 앞에 놓고 준비하는 충현의 모든 지도자들과 성도들은 꼭 이 책을 읽으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재확인하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워질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우리의 정성을 하나로 묶어 드릴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김 순 애 전도사

<산전교육부부지도>

시편에서 주는

주간의 만나

시편 34 : 2

여호와로 자랑하자

『내 영혼이 여호와로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라』

사람들은 자랑하기를 좋아합니다. 심지어는 술을 많이 마시는 것까지 자랑하고 사람을 많이 때린 것까지 자랑하고 도적질한 것까지 자랑합니다. 자랑하는 데 가 보면 흥취망칙·기괴망칙한 것을 다 자랑합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말하면 냄새나는 사람에게 무슨 자랑감이 있었습니까? 사람의 자랑은 자기를 교만하게 하고 자기를 어리석게 만들어 망신만 합니다. 자랑하는 사람은 교만해지므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고, 자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므로 사람들에게 미움을 삽니다.

성도들이여, 세상의 자랑은 지나갑니다. 꿈을 꿀 때에 맛있는 음식을 놓고 싹껏 먹는 사람이 그만이야 하품을 하고 깨어 보니 감방에 갇힌 죄수가 배가 고파 군뚝과 꼭 같습니다. 사람의 자랑은 그것이 깨어지는 날 서글프고 천대를 받고 괴로움만 남습니다. 세상의 것을 자랑하다가 그것이 없어지는 날 나는 귀구멍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땅위의 자랑할 것을 다 버리고 여호와로 자랑합시다. 여호와로 자랑하면 겸손해지고, 여호와로 자랑하면 조심하게 되고, 여호와로 자랑하면 조심하게 되고, 여호와로 자랑하면 담대해집니다.

시 35 : 11—18

배 은 망 덕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모든 죄악은 배은망덕과 욕심에서 나옵니다. 「선을 악으로 갚는」 배은망덕한 무리들은 자기가 행한 악에 대하여 책망을 받거나 자기의 불의한 욕심이 채워지지 않으면 갖은 악을 계획하며 배은망덕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배은망덕을 합니까?

지금 원수된 자들이 지난 날 병들었을 때에 내가 몸에 굶은 배운을 입고 음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주었고 가장 가까운 친구나 형제처럼 생각하여서 저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는 내 어머니가 별세한 것과 같이 슬퍼하면서 돌아보아 주었고 내 힘과 내 재산을 기울여서 죽음을 무릅쓰고 돌아보아 주었던만,

지금 내가 환난을 당하게 되니 저들이 기뻐하며 이 유도 없이 갖은 모략을 꾸미며 내가 생각 못하는 사이에 저들은 불의한 권세자와 함께 연회하면서 나를 죽

일 것을 이를 갈면서 결심한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세상입니까?

세상은 배은망덕하는 원수가 많습니다. 아벨에게는 가인이 있듯이, 다윗에게는 사울이 있듯이, 모르드개에게는 하만이 있듯이, 다니엘에게는 간신들의 모략이 있듯이 남보다 잘하면 시기하고 남보다 떨어지면 업신여김을 받습니다.

우리는 이런 일을 당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보다 더 원할 것은 내가 배은망덕한 일을 당했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올바르게 잘 감당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시편 38 : 1

주의 노로 책하지 마소서

『여호와여 주의 노로 나를 책하지 마시고 분노로 나를 정제하지 마소서』

간음죄와 살인죄를 범한 다윗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은 마땅하고 당연하지만, 다만 소원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의 매를 때려 달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것이 회개자의 심정입니다. 범죄하였으니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으나 사랑의 매를 맞는 것과 아주 끊어버리는 분노의 매를 맞는 것은 그 차이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사랑의 매를 때려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매를 맞는 것이 당연한 줄로 알아 원망함이 없고 자기의 죄를 핑계하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긍휼에 호소하여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귀합니다.

한편 강도가 그러하였고 또 니느웨 백성이 그러하였읍니다.

우리도 나의 죄를 핑계하지 말고 하나님의 긍휼에 호소합시다.

시편 38 : 5

어리석은 죄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나의 우매한 언고로소이다』

불법(不法)이 죄이며 불의(不義)가 죄이지만 우매 즉 어리석은 것도 죄입니다.

범죄가 왜 어리석은 일입니까?

1. 범죄하는 일은 처음에는 남을 죽이고 필경에는 자신을 죽이게 되니 어리석은 일이고,

2. 범죄할 때에는 남이 모를 것만 같아서 숨기려고 애를 쓰나 필경에는 만천하가 다 알도록 드러날 것이니 어리석은 일이고,

3. 범죄하는 일은 질려에서 포도를 따려고 하는 것과 같이 미친 것이 되므로 어리석은 일이고,

4. 범죄하는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일이 되므로 어리석은 일이고,

5. 자기가 지혜롭게 될 것 같아서 범죄를 하지만 필경 자기를 죽이는 바보요, 망신을 당할 수밖에 없는 불행자이며 어느모로 보든지 어리석은 자입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회개를 하게 됩니다.

이 원고는 김창인 목사의 시편강해를 출판위원회에서 정리한 것입니다. <편집자>

창 조 주 하 나 님

이 성 근 목사

<출판위원회 지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분이신 하나님이시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하나도 하나님께서 지으시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해·달·별도 하나님이 지으셨고 이 지구덩어리와 그 위에 있는 산도 강도 바다도 육지도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땅위의 금수곤충과 초목이며 금은동철도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본래 천지와 만물은 스스로 있어질 능력이 없습니다. 집을 보고 그 지은 목수를 생각하는 것같이 천지 만물을 보고 이것을 지은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찌니라』(롬 1:20)

사람이 물건을 만들려면 반드시 재료를 써야 합니다. 목수는 건축자재를 가지고야 집을 짓습니다. 사람의 손으로는 재료 없이 무엇 하나도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무한하신 능력과 지혜가 계시기 때문에 없는 중에서 비고 비인 데서 이 복잡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해와 달아 찬양하며 광명한 별들아 찬양할찌어다 하늘의 하늘도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찬양할찌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와 이름을 찬양할 것은 저가 명하시매 지음을 받았음이라』(시 148:3-5)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니라』(히 11:3)

사람의 육신은 먹어야 살고, 먹는 것 중에는 곡식이 제일 귀합니다.

곡식은 농민들이 농사하여 짓는지만 사실은 농민의 힘으로는 곡식 한 알도 만들 수 없습니다.

곡식이 되는 것은 네 가지 요소, 즉 ① 종자 ② 흙 ③ 물 ④ 햇빛이 있어야 됩니다. 이 네 가지 중에서 한 가지라도 없으면 곡식은 되지 못합니다. 이 네 가지 중에 하나도 농민이 만드는 것은 없고 이미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종자를 뿌리며, 흙을 파며, 물을 대는 것만 할 뿐입니다. 또 햇빛의 열기를 농민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전동불은 하나님이 주신 숨어 있는 전기를 사람이 발명하여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구는 밝게도 어둡게도 합니다. 그러나 태양을 누가 끄며 켜겠습니까? 햇빛이 너무 약하면 강하게 하고, 너무 강하면 약하게 하여 마치 아궁이의 불을 알맞게 때는 것처럼 태양의 열을 농민들이 제 마음대로 조절할 수 없습니다. 이것만 보아도 곡식 한 알

강이도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될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이 마시는 물도 역시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마시라고 값 없이 거저 주셨습니다. 만일 물을 기름이나 간장과 같이 한 되에 얼마씩 돈을 주고 사야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음식을 만들고 팔래를 하고 목욕을 하며 농사를 지으며 마음대로 쓰던 물을 갑자기 돈을 주고 쓰게 된다면 천지에 이처럼 어려운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필요한 물을 하나님께서는 거저 주시므로 얼마든지 거저 쓰게 하셨습니다. 감사한 일이지요. 이 세상 어디든지 물은 솟아나고 흐릅니다. 이렇게 중하고 필요하며, 좋고 편리한 물을 이처럼 풍성하게 자유로이 쓰도록 예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물을 늘 풍족하게 쓰다 보니 아무 생각도 없이 쓰는 것이 습관이 되어 냉수 한 그릇을 우습게 생각하기 쉬우나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냉수 한 그릇은 고사하고 한 방울도 마실 수 없는 것입니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르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며 나를 강퍹히 여기서 나사르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애 너는 살았을 때에 네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르는 고난을 받았으며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숙 16:23-25)

사람이 살려면 곡식이나 물보다 더 시급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공기입니다. 밥은 40일을 먹지 않아도 살 수 있고 물은 한 주일 동안 먹지 않아도 살 수 있으나 공기를 5분간만 숨쉬지 않으면 사람은 곧 죽습니다. 사람이 사는데 공기보다 더 요긴한 것은 없습니다.

이렇게 요긴한 공기를 하나님께서는 전혀 값없이 더우기 사람의 수고도 들지 않고 마시도록 하셨습니다. 물은 거저 먹는다고 하지만 우물을 판다, 수도를 놓는다 하여 얼마간 사람의 수고가 들어야 하지만 공기는 그런 수고도 없이 그저 숨만 쉬면 됩니다.

공기는 사람의 귀천을 가리지 않습니다. 공기는 평민적입니다. 왕이 마시는 공기나, 빌어먹는 사람이 마시는 공기나, 부자가 마시는 공기나, 가난한 사람이 마시는 공기나, 공기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사실 도시에 돈을 많이 들여 지은 크고 좋다는 집안에서 부자들이 마시는 공기보다 가난한 시골 사람이 푸른 하늘을 천장삼는 들의 공기가 얼마나 깨끗하고 자유롭게 호흡할 수 있어 더욱 좋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주일학교 교사 자격

정 상 우 목사

<교육위원장>

1. 주교교육의 중요성

우리는 성경을 상고할 때 하나님께서 선민의 자녀교육에 대하여 중요시하였으며 이 자녀교육에 충실할 것을 엄히 명하셨음을 찾아 볼 수 있다.

(1)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자녀교육의 의무를 명하셨으며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와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창 18:19) 이 말씀을 이스라엘 민족의 교육의 대헌장(magna Charta)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2)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적인 전환기가 되는 출애굽시에도 자녀교육을 명하셨다(출 12:24-27).

(3) 「이스라엘」 민족의 새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 살 때도 자녀교육에 힘쓸 것을 명하셨다. “너는 그 일들을 네 아들들과 네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신 4:9-14).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위에 계실 때, 힘쓰신 일이 바로 천국복음을 전하신 일과 진리를 가르치며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일이었다. 그리고 승천하실 때 분부하십시오 바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과 가르치는 일이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마 28:18-20)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일”(전도)과 “천국일꾼을 키우는 일”(교육) 이 두가지 일은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이며 또한 가장 큰 사명이며 주님의 지상명령인 것이다.

2. 주교교육의 3대요소

주교교육은 세상 교육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있다. 그것은 주교교육은 한 인간의 영혼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여 ①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며(구원) ②그리스도를 닮게 하며(성장) ③그리스도를 위하여 충성할 수 있는 일꾼이 되게 하는 데(헌신) 그 동적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주교교육의 특수성은 살리려면 3가지 요소가 꼭 있어야 한다.

(1)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주교교육의 교과과정의 토대와 핵심은 오직 성경에 두어야 한다. 왜냐하면,

① 인간은 본래 영적으로 죽었으며 하나님을 알 수 없다(엢 2:1-2; 롬 3:10-23; 고전 2:14).

② 하나님께서는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셨다.

③ 그러기에 성경만이 주교교육의 주어진 내용이며 권위있는 규범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만이 영적 생명이 전달되며(벧전 1:23), 양육과 성

장의 근원이 되기 때문이다(벧전 2:2).

(2) 중생한 교사

주교교육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신령한 사역으로서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신령한 교사들을 통해서 신령하게 감동된 성경의 진리를 전달케 하여 학생들로 신령한 생명을 얻게 하고 신령한 생활을 하게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중생한 신령한 교사들만이 이 사역에 종사할 수 있는 것이다.

사실 중생하지 못한 교사는 자신이 실제로 기독교인의 신령한 생활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영적 감화를 시킬 수가 없는 것이다.

(3) 성령의 역사

성령은 기독교인의 생활의 영적인 활력소인 것이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역사하시지 않으시면 아무리 유능한 교사가 있고 성경을 잘 가르친다 할지라도 그 교육은 사실상 효력이 없는 것이다. 세상 교육과 다를 바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중생한 교사라 할지라도 성령이 역사하실 때만이 하나님의 장중에 붙잡힌 귀한 도구가 될 수 있으며 성경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능력이 수반될 때만이 효력을 가지기 때문이다. 성령은 성경의 진리를 바로 깨닫게 하며 믿게 하며(고전 2:12-15; 엢 1:17-18), 중생케 하며(요 3:5-7; 딤후 3:5), 성화시키시며(살후 2:13; 벧전 1:2) 조명하시는 것이다(요 14:26; 16:13).

그러므로 ①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②중생한 교사, ③성령의 역사, 이상 3가지 요소는 주교교육의 원동력이 되며 이 3가지 요소가 구비되어서 그 기능을 발휘할 때 비로소 주교교육은 그 효과가 있어지게 되는 것이다.

3. 주교교사의 자격

주일학교 교사가 되려면 적어도 아래 사항을 갖추어야 한다.

(1) 중생한 자이어야 한다. 이것은 필수적이다(요 3:1-12; 고전 2:1-16).

(2) 교사 직분을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으로 알며 감사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한다(딤후 1:12).

(3) 학생에 대한 사랑과 바른 이해가 있어야 한다(요 21:15-17; 고후 6:11-12; 12:15; 빌 1:7; 살전 32:7-8).

(4) 책임감이 강하며 협동심이 있어야 한다(고후 22:18; 엢 3:7).

(5) 신앙인격이 모범적이어야 한다(딤후 4:12; 고전 4:16; 11:1).

(6) 경건생활에 힘쓰는 자여야 한다(딤후 4:13-16; 딤후 4:7; 딤후 2:15).

(7) 일반교육에 관한 교양도 있어야 한다(교육학·심리학·교수법 등의 상식이 있어야 한다).

구역소식

축하합니다(4월 중 결혼)

- 김구현군/유남순양/청년부회장, 청년부회원, 3일 오후 12시 30분, 본교회당에서
- 주선영양/주원홍씨, 김복임권할 2녀, 8일, 오후 12시 39분, 종로에식장에서
- 김상출군/최진여집사 장남, 17일, 오후 1시 을지예식장에서
- 홍인숙양/홍종만목사 장녀, 25일 오후 1시 본교회당에서
- 정한수군/정래원씨 장남, 25일, 12시 코리아나호텔에서
- 김석원군/초등부지도 전도사, 22일, 오후 1시, 부산 성도교회에서

위로합니다(4월 중 별세)

- 송달준씨/송문숙씨(신촌구역)부친, 11일 별세
- 방태환씨/김성환씨(구로구역)부군, 21일 별세
- 유내원씨/유은성양 부친, 29일 별세

기억하고 기도합니다.

1. 새성전 건축을 위해 기도합니다.

새성전 건축 준비에 난관의 문제였던 성전부지가 다 풀리어 더지 않아 설계도의 완성과 함께 금년에 정지 작업과 주춧돌 놓는 일까지 하게 될 예정입니다. 매일 위하여 기도하시고 특히 금년의 과업을 위해 구체적으로 기도합니다.

2. 해외복음선교회와 파송된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계 복음화는 우리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며 사명인 것입니다. 6개 지역 뿐만 아니라 전세계 각지역에 선교사를 보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파송되어 활동하시는 일꾼분의 선교사님 평신도선교사님들을 위해 뿌려진 씨앗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3. 북한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민족에게 주어진 사명, 북녘 땅 이북 동포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겠다는 간절한 소망이 금년 들어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민족에게 맡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임을 깨닫고 하루에 두번씩 기도로 후회합니다.

□ 알 림 □

1. 금년부터 구역예배는 성경공부 중심으로 바뀌어 실시하고 있습니다. 월 2회 모이는 구역집회에 모임 때마다 구역 공과가 실린 월간충현을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신혼부부를 위한 특강은 매 강좌마다 다른 내용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속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혼부부 강좌에 나올 대상은 결혼 적령기에 있는 젊은이로부터 결혼 후 5년된 부부에 이르기까지 참석할 수 있습니다.
3. 교회가 당면한 문제를 위해 매달 첫 금요일마다 모이는 철야기도회에 각 구역에서는 권면하시어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역장 노트

해외에서의 교회선택문제(2)

백성룡 목사

<부목사·구역권찰회장>

어떤 사람들은 혹 잘못 생각해서 해외에 나가서까지 본교회의 지도를 받아야 하는가, 그것은 마치 자기들만 잘 믿는 체 하는 독선이나 신앙의 교만같은 것이 아니겠는가, 동의 의문을 가지고 말하는 이들이 없지 않을 것이다. 물론 그렇게 되어서는 안된다.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자기가 속한 교파나 교회를 너무 들먹거리면 그런 비난을 받게 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기에 조심성있게 말이 되어야 하며 어디까지나 진리에 합당하고 신앙의 지조를 지키려는 참된 정신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목사가 자기 양배를 돌보기 위하여 관심있게 그 나아가는 길을 지도하는 일을 못마땅히 여긴다면 그것처럼 패리(悖理)한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본교회를 떠나는 교우들에게는 이에 부합한 가르침에 뒤따라야 할 것은 두말 할 나위가 없는 일이다.

먼저 교회란 어떤 곳이며 교회가 해야 할 일(기능)은 무엇인 것을 알게 하고, 다음에는 그 선택 방법이 옳은 줄 안다.

교회에 대하여 성경적으로나 신학적으로 이 지면을 통해 다 말할 수는 없지만 한 두가지 늘 마음에 두어야 할 점만을 말하고자 한다.

1.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 혹은 하나님의 성전이라(벧전 4:17, 고전 3:16, 엡 2:22) 했다. 하나님을 모신 그의 자녀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서 늘 의논하고(만민이 기도하는 집) 양육을 받으면 또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서로 신령한 교제를 나누는 곳이다. 이렇게 되면 교회는 항상 가정적인 분위기를 마련하게 되고 사랑으로 서로 돌보아 소의를 당하는 자가 없게 된다.

그러므로 어디를 가든지 서로 싸우는 일을 피하고 또 교역자 대 교인들 간에 시비하는 일에는 말려들지 않도록 잘 살펴서 교회를 택해야 할 것이다.

2.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엡 1:23)이라고 하였다.

예수님은 머리가 되시고 우리 신자들은 그의 지체가 되어 한 몸을 이루는 것이 교회다.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사역을 계승하고 수행해야 할 사명이 교회에 있다. 성례전을 바로 수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리스도의 권병으로 권정을 실시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알아 봐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 주님의 지상명령인 복음 선교에 힘을 쓰는지 알아 보는 일은 매우 귀하다.

이런 점에 미숙한 교회에 머물게 될 경우 그렇게 되도록 기도하며 힘쓰면서 덕을 세워야 할 것이다.



“귀국하신후 주요 일정에 대하여 말씀해 주신다면?
17일 출발하여 18일 도착, 3주간 체류예정이며 5월 11일 오전 11시 출국하여 그날저녁에 인도네시아에 도착할 것입니다. 주요 일정은 선교대회로 초청되었기 때문에 선교대회 프로그램에 충실하는 것이 주가 되며 이외에도 총회 선교부와 관계를 위해 총회 선교부를 방문하고 의논하는 일과 인도네시아 주재 한국선교부를 위해 기도해 주는 각 기도그룹의 사람들을 만나 보는 일 등이 저의 체류기간중 일정입니다.

“선교사님의 가족사항을 좀 소개해 주십시오.”

저는 부산에 어머니와 형님과 누님이 계십니다. 아버지께서는 할아버님과 함께 왜정때 일본 사람들에게 학살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되었을 때 일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와 함께 그 사실을 전하려고 일본선교를 원했으나 총회에서 인도네시아로 파송되어 순종했지요. 그런데 지금 생각하니 정글선교에 더욱 보람을 느끼고 있어요. 저의 가족은 정영옥 전도사와 둘인데 인도네시아에 가서 부라자지역의 사람을 양자로 삼아 세 식구입니다. 이번에 한국의 교회와 한국 성도들의 열심 등을 보여주려고 같이 왔지요.

“정글선교에 있어서 어려운 점과 선교활동을 하시면서 있었던 일화(逸話)라도 있으시면”

어려운 점이 많아 한마디로 말씀드리기가 어려우나, 첫째는 여행에 필요한 교통수단이 좋지 못해 곤란한 점이고 둘째는 정글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갖다 주고 싶은데 짐의 중량에 한계가 있어 많이 가지고 가지 못한다는 점과 세제는 언어의 문제이지요. 글을 아는 사람이 적어 특히 외부와 접촉이 없는 오지족들에게는 매우 어렵지요. 그럴 때는 그 부족말을 하는 목사님들과 같이 가서 표준어로 통역하여 말씀을 전하곤 합니다. 그래서 정글지대에 들어갈 때는 5~7명이(지리안내자 1명, 지역교회지도자 1명, 보안담당(경찰, 군인) 1명, 짐을 나르는 사람 1명) 한팀이 되어 들어갑니다. 일화를 소개해 보면 처음 인도네시아에 가서 해발 1400m 이상 되는 지역을(푸라자족)을 대상으로 3년간 선교활동을 했는데 그 지역까지 들어가려면 말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말타는 연습을 해야 했지요. 1주일간

정글선교를 위해 돈보다 기도가 필요해!

대담·정리: 고 제 원 집사

<월간충천 간사>

◇◇...7년 전 선교지인 인도네시아로 떠나 정글지대에 복음의 씨를 뿌리신 충천교회 제1호 선교사 서만수 선교사가 이번 충천선교대회 참석차 귀국, 그리던 모교회와 후방에서 기도와 물질로 지원하던 성도들과 만남의 기쁨을 나눌 수 있었다. 정글선교에 대해 바라보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면의 질문에, 첫째 기도의 지원 둘째 선교비의 지원이지만 돈보다 기도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하시며 돈 없이 선교사업은 할 수 있을지 모르나 기도 없이 선교사업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재차 힘주어 말씀하신다.◇◇

을 연습하는데 말에서 떨어지지는 않았으나 말이 사람을 끌당먹이던 것을 생각하면 지금은 재미있게 생각되지만 그 당시는 매우 심각하고 오악한 일이었지요. 그리고 인도네시아에 처음 갔을 때 그 나라 사람들은 물가에서 볼 일을 보아 변소가 없는데 변소를 찾다가 남의 부엌·방아간·문을 열어 보면서 급한 것 찾느라고 애를 먹은 것과 스마트라 나체족에 들어갔을 때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어린이, 어른들을 보았을 때에 당황하고, 불쌍하여 눈물이 나던 일 등이 기억납니다.

“이번 충천선교대회에 대하여 말씀해 주신다면”

매우 만족스러운 대회입니다. 매년 이런 대회를 가졌으면 해요. 이런 대회를 통하여 선교의 신학적 근거와 선교의 자료와 성도들에게 선교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게 하며 선교회원들에게 선교의 원리와 선교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정글선교의 바람직한 방향과 현지에서의 문서선교의 현황과 전망에 대해 말씀해 주신다면”

선교사업은 유행사업이 아닙니다. 책임사업이므로 먼저 공부와 연구로 준비한 후 보내져야 할 것입니다. 나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충분히 훈련된 다음 나가야 합니다. 정글선교를 위해서는 신학은 물론 언어학·어학·약리학·인류학에 대한 일반적인 기초와 상식이 있어야만 합니다. 문서선교의 현황은 '75년도에 성경을 찍어 무료로 배부하며 찬송가나 선교의 내용을 녹음한 카세트를 활용하고 전도지 및 성경읽기표를 인쇄하여 사용하고 있지요. 앞으로 국내의 신약서적들도 번역(인도네시아어)하여 전도용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특히 문서선교의 전망이 매우 밝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보내주시는 각종 문서들을 한분씩씩 담당해 주시는 분이 계시서 신속하게 전달되어 한국의 사정과 정보를 알았으면 합니다. 월간지(월간목회, 새가정, 쉼터 등) 신문, 평신도를 위한 신앙도서 성경공부교재 설교집·강해집 등을 매달 전달하여 보내 주시면 선교회관 도서관에 그분 이름의 기증도서로 비치해 두고 싶습니다. 월간충천 역시 여유있으시면 많이 보내 주시면 나누어 볼 수 있고 매우 도움이 됩니다. (※)

현대 중국어에 능숙한 훈련된 사람이 필요해

대담·정리 : 오 태 용 집사
〈월간종원 간사〉

◇◇◇ 세계 3대 항구 중 하나로 세계 교역의 중심지인 홍콩에 선교의 문이 열린 지 벌써 1년 반이 지났다. 홍종만 목사는 1976년 9월 20일에 출국하여 열심히 선교활동을 하시다가 제 1회 중원선교대회에 참석, 현지보고를 들려준 바 있다. 월간종원 편집실에서는 홍종만 선교사를 잠시 만나 좀 더 이야기를 나누어 교우 앞에 전한다. ◇◇◇

“우선 홍콩을 좀 소개해 주십시오”

홍콩은 섬이고 대륙에 붙은 구룡반도까지 해서 우리나라 대구시 만큼 큰 영국령(領)인데 90% 이상이 중국인이다. 인구는 450만이고 세계 18번째 수출국이며 지경학적으로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공통 접촉점이라는 미묘한 위치에서 변영을 누리고 있다.

“가족을 소개해 주십시오”

아내와 아이 셋(초·중·고)이 같이 있고 서울에는 이번에 출가한 큰 딸 외에 2명이 공부하고 있다. 그 아이들은 교회에서 제공한 사택에서 사는데 이렇게 가족들이 흩어져 있어 부모의 심정이 안타깝다. 원래 선교사의 가정은 단출해야 하는데 그런 점에서 나는 선교사로서 부적합한 사람이다.

“선교사가 된 무슨 동기라도...”

선교의 중요성은 전부터 인식해 오던 터였다. 그러나 일선에 직접 나가기에는 여러 모로 부적합하였다. 우선 나이가 많고 가족이 많고 거기다가 외국어 능력 등 자질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저 후방에서나 선교사역에 힘써 일하려고 했는데 교회 사정에 의해 선교사로 나가게 되었다. 이미 아는 대로 선교사는 팔리 보배야겠는데 적합한 인물은 없고 해서 내가 가게 되었다. 지금으로서는 홍콩 선교의 중요성을 실감하고 있다.

“홍콩 선교의 목적이라면 무엇을 들 수 있을까요?”

세가지로 본다. 첫째는 홍콩에 늘어나는 한인 교포들의 신앙 지도이다. 현재 400세대 이상, 1300여명의 한인들이 상주하고 있고 날마다 수없이 드나들고 있는데 이들에게 전도하고 신앙 지도를 해서 선교의 발판으로 삼고자 하는 것이다. 둘째는 동남아의 중심 도시로서 그 특유한 지리적 위치 때문에 많은 선교 단체들이 있는데 그들을 통해 선교 정보를 수집하고 파악하려는 것이다. 셋째로는 중국 대륙의 선교이다. 전과 달리 요즘 대륙에 대중공 선교의 가능성은 커졌다고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지금 그 문이 열리려 하고 있다.

“현재 홍콩한인교회의 현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처음 부임했을 때 60여명이 회집하였는데 지금은 120~140명이 모이고 그 중 세례교인은 80여명이나 된다. 특기할 것은 장년이 없고 주로 40대이며, 각 교파가 다 있고 제교회 외에 당회 대신 운영위원회라는 것이 있다.



“활동상황을 대략 말씀해 주십시오”

주일예배 외에 성경공부와 통신강좌를 주로 실시하며 새벽기도회, 구역예배 등 다 하는데 교인들 직업의 특수성 때문에 요일별, 지역별 성경공부를 한다. 교외적으로는 한국인 2세들에게 국어, 도의, 역사, 음악 등 국적 있는 교육을 위해 「한국학원장」의 임무를 띠고 토요일마다 세시간씩 100여명의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한다. 기타 어려운 일 당한 교민 방문, 교계 지도자들 안내 등도 빠질 수 없는 일들이다.

“홍콩 선교의 문제점이나 어려운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아까 말한 홍콩 선교의 목적 세가지 중 하나인 한인 교회의 발전에 주력하며 나머지 두가지를 떠나가려고 하는데... 전자를 폭넓게 벌리려니까 그것 정도밖에 할 수 없는 역량불임을 느낀다. 중공과 동남아 선교에는 손을 못대는 상황이 생긴다. 이를 위해서는 인원이 한 명 더 필요한데, 현대 중국어에 능숙한 훈련된 사람이 속히 있어야겠다.

“개인적인 앞으로의 계획이라도 있으신지요?”

교회의 선교 정책에 따라 움직일 뿐이다. 다만 본격 선교사로서 적절히 훈련된 선교사가 와서 자리를 잡을 때까지 있어야 할 것이다. 발판이 되는 한인교회를 공고히 하고 그 이상의 선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선교사로 일하시는 동안 있었던 무슨 재미있는 일이라도...”

어두운 면이 강한 홍콩 사회에서 예수를 모르던 이들이 믿고 세례 받은 일들이 가장 기뻐던 것 같다.

“끝으로 장차 선교사가 되려는 젊은이들에게 한마디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성경에 입각한 올바른 선교관을 인식하여 사명감을 굳게 하고, 자기가 어떤 방면의 선교를 원하는지에 따라 미션교회에 대한 꾸준한 연구가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어학 훈련에 힘써 달라는 것이다. 미션교회의 토착어는 친철히 하고 우선 영어를 능숙하게 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동남아 선교를 위해서는 전문 직업을 가진 평신도선교사가 요구되므로 기술을 습득해야 한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십니다”

(*)

구 역 공 과

<5월분 2>

창세기 공부

제 6 과 축복의 약속

본문 말씀 : 창세기 12장

읽을 말씀 :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찌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창 12:1-3)

1. 축복의 약속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한 마디로 말하면, 가장 큰 축복인 메시아의 약속입니다.

원래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범죄하므로 마치 부모를 잃은 고아와 같이 하나님을 떠나 삭막하고 어두운 사막길을 헤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범죄하였다고 버리시지 않으시고 또 그렇다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죄악을 털끝만치라도 용납하시는 것도 아니고 다만 사람의 죄를 대신 지실 구주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를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이 아브라함과 그의 언약에서 나타났습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찌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창 12:2,3)

이 말씀은 모든 언약 중에 가장 큰 약속이고 축복 중에서도 가장 큰 축복입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하여 메시아가 오셔서 만민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아직 어두움에 깔린 지평선 너머에서 떠오를 태양을 기다리듯이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확실한 소망을 안겨 주는 약속입니다(요 8:56-58).

2. 약속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그 약속을 틀림없이 지키시고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루지도 않을 것을 사람을 조롱하기 위하여 장난삼아 하는 그런 약속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대로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탄생하시므로 축복된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마 1:1)는 말씀으로 시작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마 24:35).

또한 사도 바울은 이 약속이 어떻게 모든 족속에게 적용되어 성취되었는가를 보여주었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갈 3:8,9)

이 말씀은 유대인은 물론 이방인까지도 바울의 전도를 통하여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구원의 복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을 말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모든 족속에게 성취된 것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3. 축복의 약속을 받은 자의 할 일이 무엇입니까

가. 이 축복의 약속인 메시아를 믿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이 약속이 다 이루어진 후에 살고 있지만, 아브라함은 이 예언의 약속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니』(히 11:1)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공의로우시고 사랑이 무한하시며 약속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인격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만하면 누구에게든지 이 축복의 약속을 적용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나. 이 축복의 약속인 메시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을 인하여 복을 얻은 것처럼 나로 인하여서도 모든 족속이 축복을 얻게 되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되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약속의 주인공인 메시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해야 합니다.

친구와 대화를 나눌 때에도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빠뜨려 놓고 쓸데 없는 잡담만 늘어 놓지 마세요. 그 귀한 예수님의 복음을 소개하지 않고 장시간 공연히 실없는 소리만 해서도 안됩니다.

예수님의 이름 속에는, 향기도 많고 맛도 있으며 위로도 주고 생명의 축복이 풍성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아무리 자주 예수님의 이름을 말한다 할지라도 한없이 좋은 것 뿐입니다.

(예화: 고재봉 같은 이도 전도받아 믿음으로 새사람이 되었다.)

토의 문제

1.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과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과 어떻게 다른가요?
2. 내게 주어진 축복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요?

구 역 공 과

<6월분 ①>

창세기 공부

제 7 과

축복받은 아브라함의 자세

본문 말씀 : 창세기 12~24장

읽을 말씀 :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거기서 벨렘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는 벨렘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와 이름을 부르더니』(창 12:7-8)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버지가 될찌라』(창 17:4)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므로 아브라함은 모든 인생들에게 축복받은 표본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겸손히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었고(주권 인정), 들은 말씀을 믿었으며(믿음), 또한 그 말씀대로 행하므로(실천) 축복받은 자로서 바른 자세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1.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피조물인 것을 알고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므로 인간으로서의 바른 자세를 가졌습니다.

아브라함은 임금 앞에서의 신하와 같이, 주인 앞에서의 청지기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제단을 쌓고 경배의, 절대 순종하므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습니다(창 12:7-8, 17:1-4).

성경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말할 때에 인간은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인정하고 그 주권 하에 살아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명령을 지켜야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는 「에」만 있고 「아니라」함이 있을 수 없습니다(고후 1:20).

아브라함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의 명령을 경청한 것은 인간의 기본자세이며 축복받은 모든 사람에게 표본이 되었습니다.

2.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뛰어난 점은 그의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

의 명령을 믿음으로 순종하여 기업으로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나아갔고(히 11:8, 창 12:1-4), 백세나 되어 약속을 따라 얻은 아들이지만 하나님이 바치라 할 때에 바치었습니다(히 11:17, 창 22:2).

순종은 믿음에 정비례하는 것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대한 순종은 그의 믿음의 척도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실할 뿐 아니라 능력이 있어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살았기 때문에(롬 4:17-22), 아직 약속의 복을 받지 못하였으나 소망 가운데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즐거워하였고(히 11:13), 인내하였으며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중성하였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조건이 되었고 축복의 원인이 된 것입니다.

3. 하나님의 명령을 즉시 실천하였습니다

많은 사람이 유익한 말을 듣고 또한 좋은 생각과 계획을 가지기도하나 그것을 실천하지 못하므로 모든 것을 헛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복을 받으려던” 하나님께 들은 모든 명령을 즉시 실천에 옮겨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할례를 명하실 때에 즉시 실천하였으며(창 17:22-23), 독자를 번제로 드리라고 하실 때에 이윽를 묻지 않고 즉시 실천하였습니다(창 22:15-18).

하나님의 말씀은 이론도 아니고 망상도 아니기 때문에 실천할 가치가 있으며, 또한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런 효과를 바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실천능력은 복을 받으려는 강한 의욕과 믿음에서 얻어지는 줄 압니다.

토의 문제

1. 하나님의 절대주권과 구원과의 관계는 어떤 것이니까?
2. 하나님의 약속된 모든 축복이 누구에게나 주어 집니까? 조건이 있다면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꼭 외웁시다!>

◇ 다음의 개념들을 성경의 장들과 연결시켜 외우세요.

- | | |
|----------------------|-----------|
| 15. 아브라함 자손에 대한 약속 |창15장 |
| 16. 하갈의 도망 |창16장 |
| 17. 할례에 대한 명령 |창17장 |
| 18. 아브라함이 세 천사를 맞음 |창18장 |
| 19. 소돔을 위한 아브라함의 기도 |창18장 |
| 20. 소돔성의 멸망 |창19장 |
| 21. 모압과 암몬 족속의 탄생 |창19장 |
| 22. 그랄지방에 내려간 아브라함 |창20장 |
| 23. 이삭의 출생 |창21장 |
| 24. 이스마엘의 추방 |창21장 |
| 25. 아브라함과 아비멜렉과의 화친 |창21장 |
| 26.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림 |창22장 |
| 27. 사라의 죽음 |창23장 |
| 28. 이삭이 리브가를 아내로 맞음 |창24장 |
| 29. 아브라함의 죽음 |창25장 |

타오르는 선교의 불길

연 6일에 걸친 선교대회 마쳐

지난 4월 25일(화)부터 연 6일간에 걸친 제1회 중현선교대회가 4월 30일(주일) 해외복음선교회의 헌신 예배로 막을 내렸다. 「만민을 위하여 기를 들라」(사 62:10)는 주제와 「빛의 사자들여」(새 621)를 주제찬송으로 열렸던 금번 이 대회는 중현교회 해외복음선교회 조직, 활동 10주년을 맞으며 새롭게 지나온 날들을 회고하여 보며 반성하고 앞으로의 일들을 예상 계획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는 데 큰 의의를 가지고 있다.

선교대회 취지에서 밝힌 바와 같이 ① 해외선교의 필요성 인식과 선교적 사명의식 고취 ② 해외선교사업의 기도와 헌신의 적극 참여 권장 ③ 해외선교 전략과 준비의 계기로 삼음 ④ 해외선교사 후보의 개발 및 양성의 출발점으로 삼는다는, 본 취지에 많은 접근을 할 수 있었다. 남은 문제는 금번에 제기된 문제와 계획안들이 여하히 반영되어 구체적인 행동으로 결집할 수 있는가 하는 데에 가장 중요한 점이 있다 하겠다.

선교전시회로 막을려

25일 오후 6시 30분 유치부실에 전시된 선교전시회의 테이블을 중심으로 제1회 중현선교회의 막을 올렸다. 서만수·홍종만선교사를 비롯하여 해외복음선교회 실행위원들 많은 교우들이 참석한 가운데 문을 연 선교전시회는 2개월에의 준비기간을 걸쳐 열린 노력이 역력히 나타난 것이었다. 서울본부, 인도네시아, 홍콩, 이집트, 서독, 일본, 아르헨티나 등의 7구분으로 전시된 전시회에는 선교관계 참고자료, 현지 활동하는 모습을 담은 사진들, 현지풍물들 등으로 전시되어 보는 이로 하여금 해외선교의 어려움과 해외선교 현장의 이해를 돕는 데 큰 도움을 주었다. 서만수·홍종만선교사는 각각 현지의 상황과 전시된 물품들을 일일이 설명해 주기도 하였다.

이어서 7시 30분부터 이틀간에 걸친 부흥회에서 강



사인 정성구 박사(중신대 교수)는 선교에 대한 우리의 자세를 올바르게 갖는 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

스스로 반성케 한 현지보고회

서서히 불기 시작한 대회의 불길은 세계날 27일부터 서서히 타오르기 시작했다. 인도네시아 주제 서만수선교사와 홍콩 주제 홍종만 선교사의 현지보고회는 우리로 하여금 지난 10년간의 행동들을 스스로 반성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으며 인도네시아 선교의 외로움, 어려움과 충분한 후원(전략적인 면에서)없이 뛰어야 하는 고독함 등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홍종만 선교사의 홍콩보고회는 우리가 알고 있는 홍콩의 이미지를 바꾸어 주고 현지 뛰는 현장의 모습을 부각시켜 주어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찾을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다. 특히 앞으로 대 중공, 북한선교의 가능성과 그 실행을 예상하고 있는 홍콩선교의 중요성을 일층 더해 주었던 것이다.

사명감을 불러일으킨 특강

세계날 28일의 특강은 앞으로 선교계획, 선교지등을 설정하는 문제에 많은 도움을 주었고 특히 젊은이들의 사명감을 불러일으키는 데 충분한 것이었다.

하도래 선교사(교신 교수)는 「선교계획과 선교전략」이라는 주제의 강연에서 선교전략을 짜는 데 있어서 주의해야 할 점들과 원칙등 근본적인 문제들을 다루어 주어 어느 입장에서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 점을 밝혀 주었고 손봉호 박사(중신대 교수)는 「한국을 기다리는 선교지역」이란 특강에서 오늘날의 한국교회의 부흥과 발전, 사회, 경제적인 발전들이 선교를 위하여 주어질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하며 오늘날 우리를 기다리는 선교지역을 아시아로 규정하고 그 이유와 그 상황들을



나라 나라 일별해 가며 설명하여 주었다. 특히 아시아 국가는 정치, 종교적인 이유로 선교사입국이 불가능한 나라가 많기에 기술을 가진 일반 평신도선교사가 많이 있어야 된다고 강조하여 주목을 끌었다.

총결산 발제토의 3개 분과로

다섯째날 29일은 금번 선교대회를 총결산하는 발제토의가 있었다. 3개 분과로 나누어 주제 발표를 하고 이어서 분과토의에 들어간 이날 첫 번째 연사 김영한 박사(충전대 교목실장)는 「오늘의 한국교회와 선교 제문제」 면에서 오늘날 선교신학을 비교 검토하여 보수교단의 선교신학의 문제점과 앞으로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서 홍종만 선교사는 「총현교회 선교회교와 전망」에서 그동안 충분한 계획없음과 많은 시행착오를 인정했다. 그러나 그 결과는 결코 실패한 것이 아니고 선교 10년의 오늘날의 결과는 놀라운 것이라고 말하며 앞으로를 위해 선교협력관계 유지 및 선교본부 강화 등 6개항을 제시했다. 또한 정기성 목사는 「선교사 후보양성문제」에서 선교사양성을 위한 장학회 확장 및 장학금 확보 등 4개항목의 제안하였다. 3개 분과의 주제발표를 듣고 각분과별로 열린 토의에서 많은 교우들이 참석하여, 진지하게 앞으로 총현교회 해외선교회의 향방을 찾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특강과 선교 헌신예배로 마쳐

30일, 주일까지 계속된 선교대회는 대예배 1, 2, 3, 4부에는 홍종만 선교사가 설교를 하고 또한 주일학교 각부에서는 선교에 관한 내용으로 설교를 하고 분반공부 시간에도 미리 마련한 선교에 관한 공과로 선교에 관한 것을 배웠다. 오후에는 중·고등부와 대학부가 연합하여 정영옥 전도사와 삼보양(서만수선교사 부인과 양녀, 인도네시아인)을 모시고 특강과 슬라이드를 보며 선교에 대한 이해와 헌신을 다짐하기도 했다.

저녁 해외복음선교회의 헌신예배(강사: 서만수선교사)로 막을 내린 금번 제1회 총현선교대회로 우리교회는 지난 1주간동안 온통 선교로 뒤덮여 있었다.

토막 뉴스

- *...교회에서는 5월 월야기도회를 12일 유년부실에서 가졌다.
- *...출판위원회 인쇄실장에는 정은표 집사 후임으로 정정주 집사가 임명되었다.
- *...새신자부(장년)에서는 학생신앙 간증회를 9일 새신자부실에서 가졌다.
- *...유치부에서는 9일 유치부실에서 연구수업을 가졌으며 16일에는 타고회 견학을 실시하였다.
- *...유년부에서는 2일 1학기 성경시험을, 28일에는 교사기도회를 서울기도원에서 가졌다.
- *...초등부에서는 2일 1학기 성경시험을 쳤으며 5일에는 대외행사로 덕수궁에서 그리기 및 글짓기대회를 실시하였다.
- *...초등부에서는 9일 장충공원으로 노방전도를 나갔으며 14일에는 교사기도회를 영아부실에서 가졌다.
- *...중등부에서는 1학기 성경시험 및 시장을 2일 가졌다. 16일에는 노방전도를 남산공원으로 나갔다.
- *...고등부에서는 2일 1학기 성경시험을 쳤으며 23일에는 자체사무점열이 부장단에 의해서 있었다.
- *...산업전도교육부에서는 5일 산상예배를 5일 백운대에서 가졌으며 교사기도회를 도봉산 제일기도원에서 19일 가졌으며 23일에는 찬송가부르기대회를 새신자부실에서 가졌으며 16일에는 반장훈련을 실시하였다.
- *...대학부에서는 16일 신사훈박사를 모시고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특강을 가졌으며 28일에는 교사 학생 합동 월야기도회를 가졌다.
- *...청년부에서는 5일 총현기도원에서 식수를 하였으며 16일 손봉호박사를 모시고 청년부실에서 “성경적 문화관”에 대해 특강을 가졌으며 23일 찬송가 부르기대회를 청년부실에서 가졌다.
- *...장년부에서는 1학기시험을 장년부실에서 가졌으며 9일에는 타고회 견학을 다녀 왔으며 23일에는 학생좌담회를 가졌다.
- *...노년부에서는 23일 노년부실에서 성경퀴즈대회를 가졌다.

□ 주일 집회 및 헌금 통계 □

*1978. 4. 2 현재(매월 첫 주 기준)

<집 회>

<헌 금>

구 분		남	여	계	구 분		남	여	계
예	주일 낮	I 부	178	331	509	예	주일	I	113,690
		II 부	451	1,045	1,496			II	318,875
		III 부	316	580	896			III	250,500
		IV 부	76	174	250			IV	47,740
	배	주일 저녁	268	413	681	배	십 일 조	4,504,905	
삼 일			120	290	410			월 정	469,200
주 새 신 자		I	27	36	63		주 새 신 자	감 사	453,000
		II	39	46	85			생 일	68,000
		영 아 부	90	77	167			경 조	50,000
인	유 치 부	83	84	167	배	건 축	3,072,088		
	유 년 부	155	168	323		부 활 결	88,000		
	초 등 부	160	161	321		특별헌금	1,500,000		
	중 등 부	208	170	378		주 일 학 교	영 아 부	29,570	
	학	고 등 부	163	153			316	유 치	21,800
대 학 부		84	97	181	유 년		38,495		
청 년 부		53	74	127	초 등		28,330		
장 년 부		27	282	309	중 등		168,665		
노 년 부		24	72	96	고 등	85,570			
배	교	산업교육부	13	87	100	교	대 학	107,565	
		계	2,535	4,340	6,875		계	11,420,223	

□ 신급별 교인통계 □

남/여

총세대수	교인총수	세례교인	유 세	학 습	원 인
2,864	2,696/3,992	1,497/2,704	411/325	269/328	519/635

전도용 카세트테이프 보급 안내

김창인 목사 설교 녹음

충현교회 충현출판위원회에서는 아래와 같이 전도용으로 제작된 김창인 목사 설교녹음 카세트테이프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종 류	보급가격	내 용
90분짜리	900원	설교를 포함한 예배순서 전체가 녹음됨
60분짜리	600원	설교만 녹음됨
녹 음	200원	카세트테이프를 가지고 와서 녹음만 의뢰할 때

□ 송로는 별도/국내기준—1개 50원

※ 원칙적으로 보급가격은 설교녹음전도를 위한 헌금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급가격에 구애 없이 설교녹음전도를 위해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교녹음 카세트테이프는 어떤 사람에게 필요한가?

- 교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일가 친척과 친구를 위하여
- 해외에 있는 친지나 성도 그리고 한국인 기술자들을 위하여
- 전후방 국군 장병들을 위하여
- 벽지의 농어촌교회 교역자들을 위하여
- 주일을 지키지 못하는 직장인 동료들을 위하여
-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을 위하여
- 교도소 보호소등과 같이 특수한 환경에 처한 사람들을 위하여
- 그리고 메마른 나 자신의 심령을 위하여

□ 주문 또는 안내서를 원하시면

100—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 5가 36 (전) 27—9937·9738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충현출판위원회

편집하고 나서

*...한껏 맑고 화창한 5월이다. 5월은 어버이주일, 어린이주일이 겹쳐 있고 사회에서도 5월은 가정의 달로 정하고 있다.

늘 주안에서 하나의 형제요 자매인 우리에게 세상 가정의 달이 무슨 의미를 가질 수 있겠느냐 마는 차례에 젊은이들과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 본다. 특집「젊은이와 함께 생각한다」는 지난 4월호의 젊은이들의 생각에 이은 교회내의 어른들의 글이다. 어느 가정에나 젊은이가 다 있고 또 큰 관심사가 되리라고 생각한다. 많은 도움이 있기를 바란다.

*...제 1회 충현선교대회가 성황중에 끝났다. 늘 선교에 관한 이야기, 설교, 대회들을 할 때마다 느끼는 것, 곧 이제 한국교회는 세계선교에 큰 부분을 담당하여야 한다는 것이 다시금 확실해졌고 이러한 결심이나 작오가 순간순간의 확인으로만 그쳐서는 안 되겠고 늘 자신이 참여하는 자의 자세가 되어야 하리라. 월간충현에서는 다음호에 여기에 관한 자세한 내용들을 다루고자 한다. 많은 기대와 성원 있으시기 바란다.

□ 1978년 월간충현 조직 □

충현출판위원회

월간충현분과장/조현명

서기/조선근 회계/배옥인

분과위원/정상우 이성근 김차생

윤형철 박성수 정은표

이형수 오대용 고제원

이사래

주간/이성근 편집국장/이형수

간사/오대용 고제원

기자/정주진 정윤명 유미숙 홍지향

김인숙

월 간 충 현

5월호

제6권 통권 제53호

발행인/김 창 인

편집인/조 현 명

주간/이 성 근

편집국장/이 형 수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100—서울 중구 충무로 5가 36

27—9937·9738

29—7726(편집실)

1972년 4월 30일 창간

1978년 5월 14일 발행

❁ 사진으로 보는 이모저모 ❁



◇ 4월25일 저녁 6시 전시회장의 테이프를 끊음으로 제 1회 중현선교대회가 시작되었다.



◇ 각 선교지별로 마련된 전시회관은 선교에 대한 이해에 큰 도움을 주었다.



◇ 첫째, 둘째날 정성구 목사를 강사로 부흥회가 열렸다.



◇ 세째날 (27일) 선교현지보고회가 열렸다. 환등을 통해 중공선교의 한면을 보고 있다.



◇ 28일 하도레 목사 (사진)와 손봉호 박사를 강사로 모시고 선교에 관한 특강을 가졌다.



◇ 마지막날 (30일) 오후에는 중·고·대학부가 연합으로 모여 인도네시아의 정영옥 전도사의 특강을 들었다.



어린시절의 안데르센 이야기

어린 안데르센은 글짓기를 좋아했다. 그가 11세 때에는 희곡(戲曲)을 써서 기뻐하던 나머지,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읽어 드렸다. 그러나 누구하나 칭찬해 주는 사람이 있었다. 뎀 나중엔 보인 이웃집 아주머니는 안데르센의 기분 같은 것은 아랑곳도 없이 “나는 분주해. 뭐지? 그런 엉터리 글을 듣고 있으란 말야?” 하고 판잔만 주는 것이었다.

이 말에 그만 참다 못하여 그는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이 모든 것을 주의깊게 살펴 오던 안데르센의 어머니는 부드러운 소리로 “애야, 이리와 응?” 하고 불러다가, 아름답게 꽃피어 있는 꽃밭으로 데려갔다. “자, 이것 보렴. 아름답지? 그렇지 만 두 잎짜리도 있지? 이제 막 흙 속에서 얼굴을 내어민 귀여운 두 잎. 얘, 너도 그 두 잎과 한가지야. 아직 아름답지는 못 해도 이제 굉장한 꽃이 피어 모두를 즐겁게 할 수 있지. 자, 그러니 너도 이제부터 힘을 내는제야.”

안데르센은 뒤에 유명한 작가가 되어서도, 그 날을 언제나 회상하고 어머니께 감사를 드렸다.

실로암
못가에서